

해 제

[명심보감(明心寶鑑)]은 실로 흔하게 세상을 나돌며 읽혀 온 책이다. 아마 한국인 가운데 [명심보감]이란 책이름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더구나 사오십대 이상의 식자 치고, 아니 한자를 해독하는 사람들 치고 일찍이 [명심보감]을 접해 보지 않은 사람 또한 드물 것이다.

[명심보감]이 그토록 많이 읽혀 온 것은, 이 책이 요즘의 이른바 베스트 셀러라는 책처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한 흥미나, 신기함만을 추구하는 독자의 욕구에 영합하는 허풍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선 이 책이 지난 날 서당 교육에서 주요한 교재의 하나였던 점이 많이 읽힌 원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비록 평범하나 한국인에게 절실한 삶의 예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명심보감]이 이 땅의 독서계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상아탑 안의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문 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어지면서부터였다. 한문으로 씌어진 [명심보감]이, 한문에 밝지 못한 요즘의 젊은 독서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한문을 가르치는 가숙(家塾)이 남아있어, 농촌의 일부 청소년이 한문을 배우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배우는 책이란 대개 [명심보감]이다. 굳이 가숙을 드나드는 청소년이 아니라도, 현대 문물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장년·노년층에게, [명심보감]은 여전히 그들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써 [명심보감]의 전통적인 여세는 아직도 한국의 뒷란에 남아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명심보감]은 대체 누가 지었고, 내용이 어떤 책인가? [명심보감]은 그토록 널리 유포되고 읽혔으면서도 그 편저자

는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비단 이 [명심보감]뿐이 아니고, 동양에는 저작자 불명의 책 또는 글이 많이 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이 지나친 겸손 때문에 자기가 지은 책에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기를 꺼렸던 점과, 옛 시대에는 저서의 간행 보급을 대개 책을 지은 이의 제자나 후손이 기획하고 실현하였기 때문에, 만약 저자의 제자나 후손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오래도록 나오지 않을 때에는, 저자 불명의 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았던 점에서 연유한다. [명심보감]의 편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원인도 역시 이런 데에 있다. 그래서 그 진위(眞僞)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율곡 선생도 [명심보감]을 손에 넣은 뒤 애독한 끝에 그 서문과 발문까지 쓴 바 있으나,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서문의 첫머리에서 단지 “옛사람이, 후학들이 이(利)를 따르고 의(義)를 잊어버릴까 우려하여 지었다.” 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명심보감]의 내용은 삶의 현실과 실질에 적응하여 엮여졌다. 실상 [명심보감]은 심오한 형이상학류의 책은 아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을 지닌 책이름이 시사해 주듯이, 이 책은 생활인의 자기 수양과 처세를 위한 극히 평범한 생활의 철학으로 이루어졌다. [명심보감]이 한문으로 저술된 한국 전래의 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대중성을 가지게 된 것도 책 내용의 그러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경전(經典)·사서(史書)·제자(諸子)·문집류에서 뽑은 이백 수십여 단장(斷章)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전권이 19편으로 나뉘어 있다.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복이, 악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화가 주어진다는 신념에서 선행을 권장한 [계선편(繼善篇)], 인간에 대한 하늘의 섭리의 엄연함을 말한 [천명편(天命篇)], 예정된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가르친 [순명편(順命篇)], 부모의 은덕과 효자의 아버이 섬기는 도리를 밝힌 [효행편(孝行

篇]), 자기를 바로잡는 길을 제시한 [정기편(正己篇)], 자기의 분수 안에서 안심하고 만족할 줄을 알라는 [안분편(安分篇)], 반성과 경계로 마음을 보존하라는 [존심편(存心篇)], 참음의 미덕을 가르친 [계성편(戒性篇)], 배움을 권장한 [근학편(勤學篇)], 자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훈자편(訓子篇)]들이 있고, 전권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나 배정하고서, 인생의 영고 성쇠(榮枯盛衰)의 순환, 사람 마음의 알 수 없음 등 인생사 다방면에 걸쳐 깨우침을 베푸는 [성심편(省心篇)]이 있다. [입교편(立教篇)]에서는 가르침의 기초적인 내용을 지적했고, [치정편(治政篇)]에서는 관리의 도리를, [치가편(治家篇)]에서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도리를 말했다. [안의편(安義篇)]에선 가족관계 및 교우의 의리에 관해서, [존례편(尊禮篇)]에선 예에 관해서, [언어편(言語篇)]에선 말에 관해서, [교우편(交友篇)]에선 사람 사귀에 관해서, 그리고 [부행편(婦行篇)]에선 부녀의 행실에 대한 단장을 모아 놓았다.

이와 같이 [명심보감]은 그럴 듯한 체계를 세워 거기에 쫓아 정연하게 내용을 펼쳐 간 책은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미 [명심보감]일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생활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적인 덕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마치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때와 곳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부족한 점을 스스로 살피서 적절히 다스리기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처방집 구실을 해 왔다. 따라서 서로 모순되고 상충하는 내용의 명제가 이웃해 있기도 하나, 그것은 책 자체로서는 하등 모순되는 것이 아니요, 책의 성격상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책이 대략 어느 때쯤부터 널리 읽혔을까 하는 점이다. 율곡 선생이 썼다는 [명심보감]의 서문과 발문(跋文)에 의문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에

관해서는 일단 율곡 선생의 발문을 참고함이 좋겠다.

“거년(去年:서기 1549년을 가리킴-필자주) 겨울에 가친께서 영남에서 돌아오실 적에 명심보감 한 권을 손수 가져오셨는데, 그 가운데 기재된 수백여 연은 모두 권선징악의 설이다. 내가 재삼 펴 읽고 팔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율곡 선생의 발문에 의한다면 [명심보감]은 율곡이 살던 때, 즉 16세기 중엽에 널리 유포되는 과정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저자가 책을 편저한 후 율곡 선생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역정에 대해선 문헌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무어라 단언한 수 없으나, 앞의 율곡 선생의 발문 내용으로 보아 그 때까지 이 책이 전국적인 범위로 유포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어쨌든 [명심보감]이 널리 읽힌 시기의 상한을 율곡 선생의 시대로 잡는다면 이 책은 4백여 년의 오랜 세월을 걸쳐 한국인의 정신적 양식의 공급원 구실을 톡톡히 해 온 셈이다.

책이란 그저 조용히 있기만 하는 물건은 아니다. 그것은 읽는 이의 정신에 뭔가 영향을 주려 하고, 나아가 그의 생활을 제어하려 한다. 한 개인이 특히 애독하거나 존숭(尊崇)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그 사회, 그 민족의 사고와 생활에 역시 막중한 작용을 가하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기독교의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서구의 정신과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요, 중국인의 사고와 생활을 논하려면 유교의 경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굳이 이런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공산주의 사회를 지배한 사상적 지주가 되었음을 보았으며, 카네기의 일련의 처세 수양서가 오늘날 미국인의 사고 방식 형성에 끼친 영향을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에게 [명심보

감]은 가볍게 보아 넘길 책이 아니다. 물론 [명심보감]은 책 자체로는 앞에 든 책들과는 비견이 안 된다. 그러나 이 책이 사백여 년의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통해 널리 읽혀 옴으로써,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에 알게 모르게 끼친 영향의 정도로 보면 책 내용의 뛰어남이나 심오함의 정도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결코 훌훌히 보아넘길 책은 아니다. 물론 [명심보감]이 발휘한 영향력 때문에 직접 역사에 새겨질 만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요, 그 영향의 정도란 것도 도량형기로 측정하듯 그렇게 측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재 세력으로 있으면서 한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생활을 제어해 왔다. 엄청난 양의 서구 문물 세례를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오늘날에도, 명심보감적인 것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한다.

서서히 잊혀지던 [명심보감]을 오늘날 새삼 들먹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는 [명심보감]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생활에 유익한 깨우침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다. 물론 내용에서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융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시대 사람의 어느 지나친 일면 또는 부족한 일면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것이 많음 또한 사실이다. [명심보감]은 오늘날 한국의 생활인을 위해 아직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책이다. 둘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명심보감]의 내용은 중국의 온갖 전적(典籍)에서 뽑은 것이지만, 그것을 뽑은 주체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점과, 앞에서 말했듯이 오랜 세월을 걸쳐 한국인에게 사랑받고 숭상받아 오면서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침투했고 생활태도를 제어해 왔다는 점에서 [명심보감]을 들춤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악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역]에 “적선(積善)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고 했다.

1. 착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화를 내릴 것이다. (孔子)

子曰 爲善者는 天報之以福하고 爲不善者는 天報之以禍니라.

자(子):孔子를 말함

풀이: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늘이 스스로 돌보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이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에서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 선행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가치있는 이상적 행위이다.

2. 한나라 소열제가 임종에 즈음하여 아들 후주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착한 것이면 작다 해서 아니 하지 말고 악한 것이면 작더라도 하지 말라.” 고 하였다(漢 昭烈)

漢昭烈이 將終에 勅後主曰, 勿以善小而爲하고 勿而惡小而爲之하라.

소열(昭烈): 유비(劉備). 자(字)는 현덕(玄德). 촉한(蜀漢)의 초대황제. 후주(後主):이름은 선(禪), 소열의 아들.

풀이: 이 말의 묘미는 ‘소(小)’ 에 있다 선

행(善行)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거부하지 말 것이며, 악행(惡行)은 비록 작다고 해도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선과 악을 명확한 의식으로 판단하여 분별있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하루라도 착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다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다.(莊子)

莊子曰, 一日不念善이면 諸惡이 皆自起니라.

장자(莊子): 이름은 주(周). 춘추시대 송(宋)나라 사람으로 [장자]를 지었다.

풀이: 단 하루일지라도 착한 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악(惡)의 싹이 스스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인간의 심성을 흐리게 한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는

프랑스 속담은 참다운 선의 가치를 말해준다.

4.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 듯이 주저하지 말고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라. 그리고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을 내고 악한 일이란 모름지기 즐겨하지 말라.(太公)

太公이 曰, 見善如渴하고 聞惡如聾하라. 又曰, 善事란 須貪하고 惡事란 莫樂하라.

태공(太公): 성(姓)은 강(姜), 이름은 여상(呂尙). 주(周)나라 초기 현신(賢臣)

풀이: 선악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역(逆)으로 유추(類推)해 나가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테니스는 “선을 고수하여 기치(旗幟)를 선명히 하라.” 고 했다.

5. 한평생 착한 일을 하여도 그 착함이 오히려 모자라고, 하루 악한 일을 할지라도 악은 스스로 남는다.(馬援)

馬援이 曰, 終身行善이라도 善猶不足이요, 一日行惡이라도 惡自有餘니라.

마원(馬援): 후한(後漢)의 정치가. 광무제(光武帝)를 따라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었다.

풀이: 선행이란 한평생을 두고 행하여도 오히려 그 선행이 모자랄 정도이며, 악한 일이란 단 하나라도 범하면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선과 악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행위가 끝에서 끝에 놓여 있기도 하다.

6.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반드시 이를 다 지키지 못 할 것이요,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주더라도 반드시 이를 다 읽지 못할 것이니,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陰德)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위하는 것만 못하다.(司馬溫公)

司馬溫公이 曰, 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여 以爲子孫之計也니라.

온공(溫公): 이름은 광(光). 송나라 때의 명신. 신종(神宗)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다가 실각(失脚)하였고, 철종(哲宗)때 정승이 되어 신법을 모두 폐지하였다. [資治通鑑]을 지었다.

풀이: 힘껏 돈을 벌어서 이를 유산으로 자손에게 물려 주더라도 그 재산을 자식이 잘 간수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아무리 좋은 책을 자식에게 물려 준들 과연 그 자식이 마음의 양식으로 그 책을 벗삼을지는 의심스

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남몰래 덕을 베풀고 선행을 하여 그 터전을 쌓아 놓으면 이야말로 길이길이 자손에게 은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보다 정신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동양 사상의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항상 선을 행할 여지를 가져라. 결코 구실을 만들어서 인혜(仁惠)의 의무를 피하지 말라.”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말이다.

7. 은혜와 의리를 넓게 베풀어라. 인생이란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게 마련이다.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景行錄)

景行錄에 曰, 恩義를 廣施하라, 人生何處不相逢이라. 讐怨을 莫結하라. 路逢狹處면 難回避니라.

경행록(景行錄): 송나라 때의 책 이름.

풀이: 은혜와 의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베푸는 것이 좋다. 무상(無常)한 인간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든 서로 만나게 마련이다. 은혜와 의리를 외면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상정(常情)이리라. 곤란에 처했을 경우 은혜와 의리는 언제든 베풀 만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반대로 원수와 원망은 가능한 한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처해서는 원수와 부딪치게 마련이다.

8. 나에게 착하게 하는 이라도 내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이라도 내 또한 착하게 하라.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莊子)

莊子曰, 於我善者도 我亦善之하고 於我惡者도 我亦善之니라. 我既於人에 無惡이면 人能於我에 無惡哉인저.

풀이: 내게 착하게 하든 악하게 하든 나는 이를 상관하지 않고 착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왕에 악하게 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폭 넓은 대인 관계는 살아 가는 데에 언제나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은 인(仁)에서 출발하여 노력으로써 수행한다.” 는

스페인 속담은 현대에 더 그 가치를 발휘한다.
9.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곧 나타나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화는 비록 곧 나타나지 아니하나 복이 저절로 멀어지리라.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더하는 바가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갈리어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날이 갈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다. (東岳聖帝)

東岳聖帝垂訓에 曰, 一日行善이라도 福雖未至나 禍自遠矣요, 一日行惡이라도 禍雖未至나 福自遠矣니, 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여 不見其長이라도 日有所增하고, 行惡之人은 如磨刀之石하여 不見其損이라도 日有所虧니라.

동악성제(東岳聖帝):도가(道家)의 한 사람. 이름은 알 수 없다.

풀이: 선행은 바로 그 보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선행이 쌓여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이 틀림없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악행일지라도 그 결과 또한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다가오는 복은 서서히 멀어져 가게 마련이다.

따뜻한 봄날, 싹튼 풀잎이 생장하는 순간

순간을 포착할 수는 없지만, 어느새 차츰차츰 자라나서 꽃을 피운다. 이러한 자연 현상과 같이 선행의 덕은 그 순간 순간 보람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쌓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칼을 가는 숫돌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악덕(惡德)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어 소멸로 몰고 간다.

“해마다 하나씩 나쁜 습관을 고친다면 가장 악한 사람도 곧 선량한 사람이 될 것이다.”

프랭클린의 이 말은 본래 선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

10.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한 것과 같이 하고 악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하여라(孔子)

子曰, 見善如不及하고 見不善如深湯하라

풀이:선은 끝이 없는 법, 언제나 부족한 느낌으로 선행을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절대자를 이상으로 삼는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늘의 세계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인가?

을파소(乙巴素)는 “천명은 헤아릴 수 없다.” 고 했다.

1. 하늘에 순종하는 이는 살고 거스르는 이는 망한다(孔子)

子曰,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이니라.

풀이: 하늘을 따른다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 우주의 망망한 공간 속에서 인간이 어찌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2. 하늘의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데 어느 곳을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지라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邵康節)

邵康節先生이 曰, 天聽이 寂無音하니 蒼蒼何處尋고, 非高亦非遠이라. 都只在人心이니라.

소강절선생(邵康節先生): 이름은 웅(雍). 송나라 때의 학자. 역리(易理)에 정통하였으며 저서에 황극경세(皇極經世),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 등이 있다. 시호(諡號)는 강절(康節).

풀이: 푸르디 푸른 하늘이 있다. 거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 오지 않고 그저 푸르기만 하다. 그런데 과연 하늘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하늘은 끝없이 높은 곳에 있지도 않고 끝없이 먼 곳에 있지도 않다.

하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3.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의 들으심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속이는 마음이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와도 같다(玄帝)

玄帝垂訓에 曰, 人間私語라도 天聽은 若雷하고, 暗室欺心이라도 神目은 如電이니라.

풀이: 지나가면서 아무렇게나 하는 말 또는 부담없이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내용이어야 하겠다. 은밀히 속삭이는 밀어(密語) 가운데도 상대방을 속이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속임수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으리라.

미국은 로웰은 “운(運)은 약자에게 매질이 되고 용자에게는 지팡이가 된다. “고 했다.

4.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 것이다.(益智書)

益智書에 云하기를, 惡籜이 若滿이면 天必誅之니라.

◇익지서(益智書): 송나라 때의 책이름.

풀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 있으면, 스스로 그 악한 생각에 대한 보복이 따르리라는 것이다. 악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을 배반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대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

5. 만일 착하지 못한 일을 해서 세상에 이름을 낸 자는, 비록 사람이 해하지 못하나 하늘이 반드시 벌 것이다.(莊子)

莊子曰, 若人이 作不善하여 得顯名者는, 人雖不害나, 天必戮之니라.

풀이: 악덕(惡德)을 행하여 이름을 떨친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온갖 부귀를 누린다고 해도 하늘은 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가치가 있으면

모두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고 괴테는 말했다.

6.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으며,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보이지는 않으나 새는 법은 없다.

種瓜得瓜요 種豆得豆니, 天綱이 恢恢하여 疎而不漏니라.

풀이: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돌아난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행(善行)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악한 일을 하면 악행(惡行)에 대한 보복을 받게 마련이다. 하늘은 망망하지만 결코 사소한 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며, 만물은 이 원리에 따라 빈틈없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7. 나쁜 일을 하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벌 곳이 없다.(孔子)

子曰, 獲罪於天이면 無所禱니라.

풀이: 나쁜일을 하여 죄를 범하고 하늘로부터 벌은 받으면 그 어느 곳에 호소해도 돌이킬 수 없다. 하늘이 내린 벌은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날까? 운명과 대결하고 운명에 저항한다면 그리고 운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스페인 속담에 “운은 어느 곳에도 스며든다.” 는 말이 있다.

1. 죽고 사는 것에 명에 달려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孔子)

子曰, 死生이 有命이요, 富貴在天이니라.

2. 모든 일이 나뉘어 이미 정해졌거늘 세상 사람이 부질없이 저 혼자 바빠하고 있다.

萬事分已定이어늘 浮生이 空自忙이니라.

풀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어떤 운명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미 나타난 현상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된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부질없이 안간힘을 써 보지만 결정된 운명을 뒤바꿀 수는 없다. 분수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뜻대로 생각하면 운명론에 흐르기 쉬우나, 분수에 맞는 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3. 화는 가히 오행으로는 면하지 못하고 복은 가히 두 번 다시 얻지 못할 것이다. (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禍不可倖免이요 福不可再求니라.

풀이: 기필코 입지 않으면 안 될 재앙은 어떤 요행으로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놓쳐 버린 복은, 이미 한번 지나가 버린 것으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인간 만사는 새옹마(塞翁馬).” 라고 소동파(蘇東坡)가 말했다.

4. 때를 만나면 왕발이 순풍을 만나 하룻밤에 등왕각에 가서 서문을 지어 이름을 높이듯 일이 잘 되고, 운수가 나쁘면 천복비에 벼락이 내려 비석이 깨지듯이 천신만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時來風送滕王閣이요, 運退雷轟薦福碑라.

천복비(薦福碑): 원나라 때 마치원(馬致遠)이 만든 비.

풀이: 당나라 때의 일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왕발이 꿈을 꾸었는데 망당산 신령이 나타나 계시를 해주었다. 왕발은 이 계시의 도움을 받아 순풍속에 배를 타고 하룻밤 사이에 남창 7백 리를 가서는 등왕각 서문을 지어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 구대공의 문객 가운데 지극히 가난한 자가, 천복비 비문을 탁본해 올리면 보수를 후히 준다는 소문을 듣고 천신 만고 끝에 수천 리를 갔더니, 공교롭게도 그 날 밤에 벼락이 떨어져 그 비석이 산산이 조각나 있었다. 인간사는 모두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가르침이다.

5. 어리석고 귀 먹고 고질 있고 병어리라도 집은 큰 부자일 수 있고, 지혜 있고 영리하지만 도리어 가난할 수 있다. 운수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운수를 놓음에 있어 부유하고 가난함은 사람으로 말미암음에 있지 않고 그 명에 있다. (列子)

列子曰, 痴聾癡瘂도 家豪富요 知慧聰明도 却受貧이라. 年月日時 該載定하니 算來由命不由人이니라.

孝行篇 -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아버이는 우리를 낳고 기르기에 고심 참담하였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에 보답할 것인가?

“부모를 왕위에 오르게 하여도 그 은혜를 갚았다고 할 수 없다”는 석가모니의 말씀은 부모의 은혜가 깊음을 말해준다.

1.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닦다 아버지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기 얼마나 힘드셨으랴! 그 은혜 갚고자 하나 그 은혜 하늘같이 끝이 없도다(詩經)

詩에 曰, 父兮生我하시고 母惠鞠我하시니 哀哀父母여, 生我劬勞샀다. 欲報之德인댄 昊天罔極이로다.

2. 효자의 아버이 섬김은, 기거하심에 공경을 다하고 봉양함에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신 때에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 때에 슬픔을 다하고 제사지냄에 엄숙을 다한다.(孔子)

子曰, 孝子之事親也는,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라.

예수는 “아버지의 훈계를 지키고 어머니의 타이름을 거스르지 말라” 고 말했다.
3.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 멀리 떠나서 놀지 말 것이며,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孔子)

子曰, 父母 在하시거든 不遠遊하리니, 遊必有方이니라.

4. 아버지께서 부르시거든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음식이 입 안에 들었으면

빨을 일이다.(孔子)

子曰, 父 命召하시거든 唯而不諾하고 食在口則吐之니라.

◇ 유이불락(唯而不諾): ‘유(唯)’ 는 ‘예!’ 라는 말이니 곧 부르는 즉시 하는 빠른 대답이고, ‘락(諾)’ 은 느린 대답이다.

스펜서는 “아이는 부모의 거동을 비추는 거울” 이라고 말했다.

5.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내게 효도하리니, 자식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太公)

太公이 曰, 孝於親이면 子亦孝之하나니, 身既不孝면 子何孝焉이리요.

6. 효순(孝順)한 이는 다시 효순한 자식을 낳을 것이요, 오역(五逆)을 범한 이는 다시 오역을 범하는 자식을 낳으리라.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저 처마 끝의 낙숫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내리는 것이 어긋나지 않는 것을.

孝順은 還生孝順子요 五逆은 還生五逆子라. 不信이면 但看簷頭水하라. 點點滴滴不差移니라.

◇오역(五逆): 이 말은 원래 불교의 ‘오역죄(五逆罪)’, 즉 ‘오무 간업(五無間業)’ 을 가리킨다. 소승(小乘) 불교와 대승(大乘) 불교에 따라 그 죄목이 다른데, 소승 불교의 오역은 첫째 아버지를 죽이는 것, 둘째 어머니를 죽이는 것, 셋째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 넷째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 다섯째 불신(佛身)을 상해하여 피가 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오역죄를 말하는데 임금을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할아버지를 죽이는 것, 할머니를 죽이는 것

등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 말했다. 인식의 근원은 자아로부터 시작되고 이 자아의 올바른 확립이야말로 타아를 깨닫는 출발이 아닌가.

애덤 스미스는 “오만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1. 남의 선을 보고 나의 선을 찾고, 남의 악을 보고 나의 악을 찾아라. 이렇게 해야 바야흐로 이익이 있으리라(性理書)

性理書에 云하기를, 見人之善이든 而尋己之善하고, 見人之惡이든 而尋己之惡하라. 如此라야 方是有益이니라.

◇성리서(性理書): 송나라 때의 성리학에 관한 책.

[다른 사람의 선을 보고 나에게도 그와 같은 선이 있는가를 찾아보며,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 그와 같은 악이 내게도 있는가를 찾아보고 악은 제거하라.

2.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大丈夫 當容人이언정 無爲人所容이니라.

3. 자신만을 귀하게 여겨 남을 천히 여기지 말고, 스스로가 크다 해서 남이 작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용맹을 믿고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太公)

太公이 曰, 勿以貴己而賤人하고, 勿以自大以蔑小하고, 勿以恃勇而輕適이니라.

4. 남의 허물을 듣거든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 말하지는 말라(馬援)

馬援이 曰, 聞人之過失이든 如聞父母之名하여 耳可得聞이언정 口不可言也니라.

스위프트는 “명성과 비난은 운명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고 말했다.

5. 남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곧 성내지 말며 남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곧 기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나쁨을 듣더라도 이에 주관 없이 맞장구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착함을 듣거든 나아가 이에 화답해 응하고 또 따라 기뻐하라. 시에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착한 일 듣기를 즐겨하며,
착한 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라.

남의 나쁨을 듣거든
가시를 진 듯이 하고
남의 착함을 듣거든
향초를 지닌 듯 하라.(邵康節)

邵康節先生이 曰, 聞人之謗이라도 未嘗怒하며 聞人之譽라도 未嘗喜하며, 聞人之惡이라도 未嘗和하고, 聞人善則就而和之하고, 又從而喜之니라. 其詩에 曰, 樂見善人하며, 樂聞善事하며, 樂道善言하며, 樂行善意하고, 聞人之惡이든 如負芒刺하고, 聞人之善이든 如佩蘭蕙니라.

6. 나를 착하다 추켜 주는 이는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를 나쁘다 깨우쳐 주는 이는 곧 내 스승이다.

道吾善者는 是吾賊이요, 道吾惡者는 是吾師니라.

[풀이] 참다운 충고의 의미를 말해준다.

프랑스의 라퐁텐은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면서
실상은 모든 것을 잃는다.” 고 했다.
7. 부지런함은 값 없는 보배요, 삼가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太公)

太公이 曰, 勤爲無價之寶요, 愼是護身之符니
라.

8. 삶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이는 욕심을 적
게 갖고, 몸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이는 명
예를 피한다. 욕심 없기는 쉬우나 명예욕을
없애기는 어렵다(景行錄)

景行錄에 曰, 保生者는 寡慾하고, 保信者는
避名이니, 無慾은 易하나 無名은 難이니라.

9. 군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연소할 때엔 혈기가 아직 진정되지 못한지
라 경계해야 할 바가 여색(女色)에 있고, 장
성함에 이르러선 혈기가 한창 굳센지라 경
계해야 할 바가 쟁투(爭鬪)에 있고, 늙음에
이르러선 혈기가 이미 쇠약한지라 경계해야
할 바가 탐냄에 있다.(孔子)

子曰, 君子 三有戒하니, 少之時엔 血氣未定
이라 戒之在色하고, 及其壯也하여선 血氣方
剛이라 戒之在鬪하고, 及其老也하여선 血氣
既衰라 戒之在得이니라.

◇색(色): ‘여색(女色)’ 을 말함.

10. 심하게 성내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크게 상한다. 정신이 피곤하
면 마음이 쉬이 수고로워지고 기운이 약하
면 병이 따라 일어난다. 지나치게 슬퍼하거
나 기뻐하지 말고 모름지기 음식을 고르게
먹으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둬 금하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孫眞人 養生銘)

孫眞人養生銘에 云하되, 怒甚偏傷氣요 思多
太損神이라, 神疲心易役이요 氣弱病相因이
라, 勿使悲歡極하고 當令飲食均하며, 再三防
夜醉하고 第一戒晨嘔하라.

◇손진인(孫眞人): ‘손(孫)’ 은 성, ‘진인
(眞人)’ 은 도가에서 ‘진(眞)’ 을 닦아
‘도(道)’ 를 얻은 사람을 가리키나 보통
꼴로 장생의 신선술을 닦아 신선이 된 사람
을 ‘진인(眞人)’ 이라 일컫는다. ◇양생명
(養生銘): 생을 섭양(攝養)하는, 다시 말해
서 몸과 마음을 건강히 보존하여 병을 피하
고 장수를 피하는 것이 이른바 양생이다.
‘명(銘)’ 은 주로 금석(金石)·일용 기물
(器物) 등에 새기거나 써 두는 사물의 내
역·공적 또는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을 운
문으로 표현한 한문체의 하나인데, [양생명]
은 바로 양생에 유의하기 위한 명문이다.

[풀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 생
활의 중요함을 말한 글이다.

11. 음식이 담박(淡泊)하면 정신이 맑아지
고 마음이 맑으면 잠도 편안하게 잔다(景行
錄)

景行錄에 曰, 食淡精神爽이요 心清夢寐安이
니라.

“탐욕은 사람을 장님이 되게 한다.” 는 영국
속담이 있다.

12. 마음가짐을 침착히 하여 사물에 응할
수만 있다면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
있는 군자라 할 만하다.

定心應物이면 雖不讀書라도 可以爲有德君子
니라.

[풀이] 군자가 달리 있지 않다. 매사에 마음
가짐을 침착히 하여 사리 정연하게 외부의
사물에 접응(接應)해 갈 수만 있다면 그가

비록 한 편 글을 읽을 줄 모른다 하더라도
덕 있는 군자라 일컬음직하다.

13. 분(忿)을 징계하기를 불 끄듯이 하고,
욕심 막기를 물 막듯이 하라.(近思錄)

近思錄에 云하되, 懲忿을 如救火하고 窒慾을 如防水하라.

◇근사록(近思錄): 송나라의 학자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함께 편찬한 책으로, 송대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 등이 남긴 말 가운데서 일상에 절실한 6백여 조목을 모은 것이다.

[풀이] 불과 물을 그 단초(端初)에서 끄고 막지 않으면 갈수록 세가 커져 마침내 큰 재해를 가져온다. 사람 마음속의 분심(忿心)과 욕심 또한 그와 같으므로 모름지기 분(忿)과 욕(慾)을 그 발단에서 징계하고 막아라. 발단에서 징계하고 막지 않으면 갈수록 세력이 커져 마침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큰 후환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이다.

14. 색(色)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 하라. 빈 속에 차를 마시지 말며, 밤중에는 밥을 적게 먹을 일이다.(夷堅志)

夷堅志에 云하되, 避色如避讐하고 避風如避箭하라. 莫喫空心茶하고 少食中夜飯하라.

◇이견지(夷堅志): 송나라 때의 홍邁(洪邁)가 지은 책으로 신선과 귀신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풀이] 이글은 선가(仙家)의 양생(養生)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색(色)을 삼간다거나, 빈 속에 차를 마시지 말며, 밤중에는 밥

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 따위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일이나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 하라.”는 것은 그 까닭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15.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물리쳐 다스리지 말라(荀子)

荀子왈, 無用之辯과 不急之察을 棄而勿治하라.

◇순자(荀子): 이름은 황(況), 전국 시대 조(趙)나라 사람으로 성악설(性惡說)과 예치주의(禮治主義)를 제창했다. 성악설은 이기적인 심정을 근원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의 본성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예치주의는 성현(聖賢)의 예를 규범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정치의 요체(要諦)로 삼는 중국의 옛 정치 사상이다.

[풀이] 당장 하지 않아도 좋은 쓸데없는 말 그리고 더 급하지 않은 일, 이런 것은 물리쳐 버리고 다스리지 말 일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럴 때에는 밤이 낮을 따라오는 것같이 어떠한 사람도 너를 속이지 않으리라.”
세익스피어의 말이다.

16. 못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못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볼 일이다.(孔子)

子曰, 衆이 好之라도 必察焉하며, 衆이 惡之라도 必察焉이니라.

17. 술 취한 가운데도 말을 늘어놓지 않음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 거래에 분명함은 대장부다운 일이다.

酒中不言은 眞君子요, 財上分明은 大丈夫니라.

18.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좇으면 그 복록(福祿)이 저절로 두터워지리라.

萬事從寬이면 其福이 自厚니라.

19. 다른 사람을 해아리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해아려 보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뱉자면 먼저 제 입이 더러워지는 법이다.(太公)

太公이 曰, 欲量他人하거든 先須自量하라. 傷人之語는 還是自傷이니, 含血噴人이면 先汚其口니라.

[풀이] 어느 경우에 처하여 다른 사람 마음에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해아리려거든 먼저 자신을 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보라. 남을 헐뜯어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니 가령 피를 머금어 남에게 뱉으려고 들면 남을 더럽히기 전에 제 입부터 더러워지는 법이다.

20. 무릇 놀이는 이익됨이 없고, 오직 부지런함으로써만 공이 이룩된다.

凡戲는 無益이요 惟勤이 有功이니라.

네덜란드의 브르하브에는 “증상은 이를 불려일으키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불덩어리와 같다. “고 했다.
21. 남의 오이밭 가에선 신을 고쳐 신지 말 일이요,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 일이다.(太公)

太公이 曰, 瓜田에 不納履요 李下에 不正冠이니라.

[풀이] 남의 오이밭 가에서 신을 고쳐 신으려고 몸을 구부리면, 멀리서 보는 이는 오이를 따려 한다고 오해할 것이다. 남의 오

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려고 손을 올리면, 멀리서 보는 이는 오얏을 따려 한다 하리라. 모름지기 남으로부터 의심받고 오해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22. 마음은 편안하게 하더라도 몸은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도는 즐기더라도 몸가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나니,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몸가짐을 걱정하지 않으면 방종하여 쫓대가 없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걱정함에서 생겨 내내 싫어함이 없나니, 편안하고 즐겁고자 하는 이가 걱정과 수고로움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는가.(景行錄)

景行錄에 曰, 心可逸이언정 形不可不勞요, 道可樂이언정 身不可不憂니, 形不勞則怠惰易弊하고 身不憂則荒淫不定이라. 故로 逸生於勞而常休하고 樂生於憂而無厭하나니, 逸樂者는 憂勞를 豈可忘乎아.

23.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결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거의 군자이리라.

耳不聞人之非하고 目不視人之短하고 口不言人之過라야 庶幾君子니라.

24. 기뻐하고 노여워함은 마음 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蔡伯階)

蔡伯階 曰, 喜怒는 在心하고 言出於口하니 不可不愼이니라.

◇채백계(蔡伯階): 후한(後漢)의 학자로 이름은 웅(邕), ‘백계(伯階)’는 그의 자(字)이다.

25. 재여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공자가 말

썩하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된 담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고 했다.

宰予가 晝寢이어늘 子曰, 朽木은 不可雕也
요 糞土之牆은 不可圻也니라.

◇재여(宰予): 공자의 제자로 자는 자아(子我)이다. 이른바 공문 십철(孔門十哲) 가운데 한사람으로 자공(子貢)과 더불어 언변에 능했다고 한다.

“온량(溫良)과 총명(聰明)은 다개
상종(相從)한다.”

영국의 포우프의 말이다.

26. 복은 맑고 검소한 데서 생겨나고, 덕은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겨나고, 도는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겨나고, 생명은 화창한 데서 생겨난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겨나고, 화는 탐심(貪心)이 많은 데서 생겨나고, 허물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겨나고, 최악은 어질고 착하지 않은 데서 생겨난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내고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벗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늘어놓지 말고, 내게 관계 없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군왕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있는 이를 받들며, 지혜 있는 이와 어리석은 이를 분별하되 무식한 사람을 너그럽이 대하라.

사물이 순리대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사물이 이미 가 버렸거든 좇지 말며, 몸이 불우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이도 어두운 수가 많고, 잘 짜인 계획도 편의(便宜)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게 하면 마침내는 자기도 손실

을 당할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화가 잇따라 오리라.

경계함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의기에 있다.

절약하지 앎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앎으로써 말미암아 벼슬자리를 잃는다.

이와 같이 그대에게 항상 스스로 경계하도록 권고하노니, 참으로 놀랍게 여겨 잘 생각하라.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굽어 보고 아래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삼법(三法)이 이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잇따른다. 오직 바름(正)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일이니 경계하고 경계하라(紫虛元君 誠諭心文)

紫虛元君誠諭心文에 曰, 福生於清儉하고 德生於卑退하고 道生於安靜하고 命生於和暢하고 患生於多慾하고 禍生於多貪하고 過生於輕慢하고 罪生於不仁이니라. 戒眼하여 莫着他非하고 戒口하여 莫談他短하고 戒心하여 莫自貪嗔하고 戒身하여 莫隨惡伴하고 無益之言을 莫妄說하고 不于己事를 莫妄爲하고 尊君王孝父母하고 敬尊長奉有德하며 別賢愚恕無識하고 物順來而勿拒하며 物既去而勿追하고 身未遇而勿望하고 事已過而勿思하라. 聰明도 多暗昧요 算計도 失便宜니라. 捐人終自失이요 依勢禍相隨라. 戒之在心하고 守之在氣라. 爲不節而亡家하고 因不廉而失位니라. 勸君自警於平生하노니 可歎可驚而可思라. 上臨之以天鑑하고 下察之以地祇라, 明有三法相繼하고 暗有鬼神相隨라. 惟正可守요 心不可欺니 戒之戒之하라.

◇자허원군(紫虛元君): ‘원군(元君)’은 도가에서 여자 등선자(登仙者)에게 쓰는 칭호. 남자에게 쓰는 ‘진인(真人)’과 같은 것이다. ◇성유심문(誠諭心文): ‘참으로 마음을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글’이란 뜻이다. ◇삼법(三法): 경(輕)·중(中)·중(重) 삼급의 율법.

安分篇 - 만족과 분수의 한계

인간은 욕망을 지니고 태어났다.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엮어 낸 복잡한 도표가 아닌가.

“풍부한 마음이 없으면 그의 부(富)는 추(醜)한 거지다.” 라고 한 에머슨의 말은 서양의 생각인 동시에 동양의 생각이다.

1. 족한 줄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하기에 힘쓰면 근심이 끊어지지 않으리라.(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知足이면 可樂이요 務貪則憂니라.

2. 족한 줄을 아는 이는 빈천해도 즐겁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는 부귀해도 근심에 빠진다.

知足者는 貧賤도 亦樂이요 不知足者는 富貴도 亦憂니라.

[풀이] 만족의 한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다. 때문에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설령 가난해도 만족하여 살아 가는 것이 즐거울 수 있으나,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설령 부귀하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근심으로 전전(輾轉)하리라.

3. 분수에 넘친 생각은 한갓 정신만 상하게 할 뿐이요, 망령된 행동은 도리어 재화(災禍)만 불러일으킨다.

濫想은 徒傷神이요, 妄動은 反致禍니라.

4. 족한 줄을 알아 항상 족하면 평생토록

욕보지 않을 것이요, 그칠 바를 알아 항상 그치면 평생토록 부끄럼을 당하지 않으리라.

知足常足이면 終身不辱하고, 知止常止면 終身無恥니라.

쇼펜하우어는 “만족은 고통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생존상의 적극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5. 가득 찬 것은 덜리게 마련이요, 겸양(謙讓)하면 이익을 받게 마련이다.(書經)

書에 曰, 滿招損하고 謙受益이니라.

◇서(書): [서경(書經)]을 가리킴. 고대 중국 제왕들의 정치에 관한 기록으로, [시경(詩經)]과 더불어 유교 경전의 하나이다.

6.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고, 기를 알면 마음 스스로 한가하리니, 이것이 비록 인간 세상에 살지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리라.(擊壤詩)

擊壤詩에 云하되, 安分身無辱이요 知機心自閑이라, 雖居人世上이나 却是出人間이니라.

◇격양시(擊壤詩): 송나라 소옹(邵雍)이 지은 [격양집(擊壤集)]에 실린 시를 말한다.

[풀이]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서, 욕망을 좇아 방종하지 않으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다. 세상 일이 돌아 가는 기를 알아 달관(達觀)할 줄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하게 마련이다. 이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사바(娑婆)의 인간 세상에 살지라도, 유유 자적(悠悠自適)의 멎은 도리어 그로 하여금 사바 세상을 벗어난仙境(仙境)에 있게 할 것이다.

7.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政事)를
피하지 않는다.(孔子)

子曰, 不在其位 하면 不謀其政 이니라.

[풀이] 제가 있는 지위에는 그 지위에 해당
하는 일이 있으니, 오직 그 일이나 충실할
따름이요, 제 지위의 한계를 지나쳐 다른
지위에 해당하는 정사를 함부로 피하려 들
지 말 일이다. 제 일은 소홀히 하고 공연히
남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는 말이 있다. 모든 현상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인생관의 중요한 요소이다.

희랍의 에피큐테토스는 “사람은 사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1. 밀실(密室)에 앉았어도 마치 저 네거리
에 앉은 듯 하고, 촌심(寸心)을 제어(制馭)
하기를 마치 육마(六馬) 부리듯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坐密室을 如通衢하고, 馭寸心을 如六馬하면 可免過니라.

◇통구(通衢): 사통(四通)의 대도(大道), 즉 네거리 ◇육마(六馬): 옛날 천자(天子)가 타고 다니던 수레로서 ‘여섯 필의 말’ 이 끈 데서 유래했다.

[풀이]아무도 보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비행(非行)을 저지른다거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요컨대 평상시라도 중인(衆人)이 자기를 주시한다고 생각하며,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라도 이를 신중히 하면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부귀를 만약 지력(智力)으로 구할 수 있다면 중니(仲尼)는 젊은 나이에 의당 제후에 봉해졌으리라. 세상 사람은 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헛되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근심하게 하는구나(擊壤詩)

擊壤詩에 云하되, 富貴를 如將智力求했다면 仲尼年少合封侯라. 世人은 不解青天意하고 空使身心半夜愁라.

◇중니(仲尼): 공자의 자(字)

[풀이] 부귀가 지력으로만 얻어지리라고 믿지 말라. 만약 부귀를 지력으로만 구할 수 있다면 공자 같은 이는 젊은 나이에 의당 제후에 봉해졌어야 마땅하다. 세상 사람은 저 푸른 하늘이 정해 둔 뜻, 곧 운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 헛되이 몸과 마음을 녹이며 한밤중에 시름겨워한다는 말이다.

“검손·사양이 제일의 덕” 이라고 한 드라이든의 말은

참다운 교양의 정곡(正鵠)을 찌른 경구이다.

3.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책망하는 데는 밝고, 비록 지혜를 지닌 이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어두워지는구나. 너희는 모름지기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것 없으리라. (范忠宣公)

范忠宣公이 戒子弟曰, 人雖至愚나 責人則明하고, 雖有聰明이나 恕己則昏이니, 爾曹는 但當以責人之心으로 責己하고, 恕己之心으로 恕人則不患不到聖賢地位也니라.

◇범충선공(范忠宣公): 북송(北宋)의 명신 범중엄의 아들로써 이름은 순인(純仁). ‘충선(忠宣)’ 은 시호(諡號)이다. 철종(哲宗) 때에 재상을 지냈으며 사람됨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충직·독실했다.

4. 지혜가 뛰어나고 생각이 현명하더라도 어리석음을 지켜라. 훈공(勳功)이 천하를 덮었더라도 겸양하는 마음을 지켜라. 용력(勇力)이 세상에 떨치더라도 겁약(怯弱)함을

지켜라. 부유하여 사해(四海)를 소유했다라고 겸손함을 지켜라.(孔子)

子曰, 聰明思睿라도 守之以愚하고, 功被天下라도 守之以讓하고, 勇力振世라도 守之以怯하고, 富有四海라도 守之以謙이니라.

◇사해(四海): ‘은 천하’, ‘은 세상’ 이라는 뜻.

5. 백 가지 교묘한 재주로 백 가지 일을 이름이 한 번 줄(拙)한 것만 못하다.

百巧百成이 不如一拙이니라.

[풀이] 백 가지 교묘한 재주가 있어 백 가지 일을 이름은 실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를 믿어 자만하느라고 한 번쯤 줄(拙)함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백 가지 교묘한 재주로 백 가지 일을 이룩한 업공(業功)이 일거(一舉)에 무너지는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때로 한 번 줄함을 지킨 효능이 오히려 백 가지 교묘함보다 나을 적이 있다. 백 가지 교묘함을 지니되 어느 한 구석엔 항상 줄함을 함께 지닐 일이다.

세네카는 “은의(恩義)는 그가 행한 봉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베풀어 준 성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6. 박하게 베풀고서 후하게 바라는 이에게는 보답이 없고, 귀하게 되고 나서 천하던 때를 잊는 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리라. (素書)

素書에 云하되, 薄施厚望者는 不報하고 貴而忘賤者는 不久니라.

◇소서(素書):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책이다. 도(道)·덕(德)·인(仁)·의(義)·예(禮) 다섯을 일체(一體)

로 한 것이 그 대강의 요지이다. 송나라의 장상영(張商英)이 주석했는데, 본문과 주석한 글이 마치 한 사람이 쓴 듯하여 실제로 [소서]는 장상영이 쓴 책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7.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뒤에 뒤우치지 말라.

施恩이어든 勿求報하고, 與人이어든 勿追悔하라.

8. 용력(勇力)은 크게 가지되 마음씀은 세밀하게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方正)하게 할 일이다.(孫思邈)

孫思邈이 曰, 膽欲大而心欲小하고, 智欲圓而行欲方이니라.

◇손사막(孫思邈): 당대(唐代)의 학자로서 특히 노장 사상에 정통했고, 음양학(陰陽學)·의약학(醫藥學)에 조예가 깊었다.

9. 생각은 항상 전장(戰場)에 나가는 날같이 하고, 마음은 언제나 다리를 건너는 때처럼 지닐 일이다.

念念要如臨戰日하고, 心心常似過橋時니라.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법도의 순서와 계획이 필요한 법.

10.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겁게 살 수 있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리라.

懼法朝朝樂이요, 欺公日日憂니라.

11. 입을 지키는 것은 병(瓶)과 같이 하고, 뜻을 막는 것은 성(城)과 같이 하라.(朱文公)

朱文公이 曰, 守口如瓶하고 防意如城하라.

◇주문공(朱文公): 송나라 때 성리학의 집대성자. ‘문공(文公)’은 시호(諡號), 자(字)는 ‘원회암(元晦庵)’. 존칭해서 ‘주자(朱子)’라고도 한다. 그의 학문을 ‘주자학(朱子學)’이라 부르며, 그가 학문을 강의하던 곳의 이름 ‘고정(考亭)’을 따서 그를 따르는 학파를 ‘고정학과(考亭學派)’라고 한다. 저서로 [시집전(詩集傳)], [사서집주(四書集註)],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근사록(近思錄)], [소학(小學)] 등이 있다.

[풀이] 한번 입 밖에 나간 말은 마치 옆질러진 물처럼 수습할 수 없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조심하여야 한다. 한번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은 마치 공격해 오는 적군처럼 맹렬한 기세로 뻗쳐 나가기 쉽다. 탐욕 막는 것을 성벽(城壁)처럼 확고히 하여야 한다.

주베날은 “임종(臨終)의 회오(悔悟)에는 응보(應報)가 드물다.” 고 했다.

12. 마음속으로 남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을 것이다.

心不負人이면 面無慚色이니라.

[풀이]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하여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가르침이다.

13. 백 살을 사는 사람이 없건만, 사람은 부질없이 천 년이나 살 듯 계획을 세운다.

人無百歲人이나, 枉作千年計니라.

14. 관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이 불공평하고 바르지 않게 행하다가 관직을 잃고 나서 후회하리라. 부유할 적에 절약해 쓰지 않다가 가난해진 때에 후회하리라. 기예(技藝)를 젊

어서 배우지 않았다가 시기가 지난 때에 후회하리라. 사물(事物)을 보고 배워 두지 않았다가 필요할 때에 후회하리라. 취한 뒤에 함부로 지껄었다가 깨어날 때에 후회하리라. 몸이 성할 적에 휴양하지 않았다가 병든 때에 후회하리라(寇萊公 六悔銘)

寇萊公六悔銘에 云하되, 官行私曲失時悔요, 富不儉用貧時悔요, 藝不小學過時悔요, 見事不學用時悔요, 醉後狂言醒時悔요, 安不將息病時悔니라.

◇구래공(寇萊公): 북송(北宋) 진종(眞宗) 때의 재상 구준(寇準)을 가리킨다. ‘내공(萊公)’은 그가 거란(契丹)의 침입을 물리치는 등 공로를 세워 ‘내국공(萊國公)’에 봉해져서 부르는 말이다. ◇육회명(六悔銘): 여섯 가지 후회할 일에 관한 명문(銘文)

“자신을 이긴 자는 진정한 승리자다.” 라고 한 디즈렐리의 말은 극기(克己)의 인생 철학을 가르쳐 준다.

15. 차라리 일 없이 가난할지언정 일 있으면서 부자이지 말 것이요, 차라리 일 없이 몇집에 살지언정 일 있으면서 금옥(金屋)에 살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益智書)

益智書에 云하되, 寧無事而家貧이언정 莫有事而家富요, 寧無事而住茅屋이언정 不有事而住金屋이요, 寧無病而食麤飯이언정 不有病而服良藥이니라.

◇모옥(茅屋): 몇집, 초가. ◇금옥(金屋): 화려한 집을 말한다. ◇추반(麤飯): 거친 밥.

16. 마음이 편안하면 몇집도 안온하고, 성정(性情)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心安茅屋穩이요, 性定菜羹香이니라.

17. 남을 책망하기만 하는 이는 사림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기만 하는 이는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責人者는 不全交요, 自恕者는 不改過니라.

18.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생각하는 바가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이는 사람들이 설사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알리라. 배불리 먹고 다사로이 입고서 안락히 제 몸만 보호하는 이는 몸은 비록 편안할 것이나 그 자손에게는 어찌할 것인가.

夙興夜寐하여 所思忠孝者는 人不知나 天必知之요, 飽食煖衣하여 怡然自衛者는 身雖安이나 其如子孫에 何오.

스페인 속담에 “생나무는 마른 나무를 대신해서 타고, 의인(義人)은 불의자(不義者)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19.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야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부귀를 보전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 아닐 것이 없으리라.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사림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以愛妻子之心으로 事親則曲盡其孝요, 以保富貴之心으로 奉君則無往不忠이요, 以責人之心으로 責己則寡過요, 以恕己之心으로 恕人則全交니라.

20. 네가 피하는 것이 좋지 못하면 깨우치들 어찌 미치겠으며, 너의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익을 피하는 마음만 오로지하면 도를 거스르게 되고, 사(私)를 위하는 뜻이 굳으면 공(公)을 멸하게 된다.

爾謀不臧이면 誨之何及이며, 爾見不長이면 教之何益이리요, 利心專則背道요, 私意確則滅公이니라.

◇회(誨): [명심보감]의 여러 유행본(流行本)에는 ‘회(誨)’가 아니라 ‘회(悔)’로 되어 있다. 이 구절의 출전이 밝혀져 있지 않아 자세히 고찰하기 어렵지만, 여러 책의 ‘회(悔)’자는 그 자형(字形)이 비슷한 데서 ‘회(誨)’자의 오각(誤刻) 또는 오인(誤印)임이 틀림없다. 글의 뜻에 비추어 ‘회(悔)’는 맞지 않는 말이고 ‘회(誨)’가 이치에 맞는다. ‘회(誨)’는 ‘효교(曉敎)’이니 ‘가르치다’, ‘깨우치다’란 뜻이다.

[풀이] 너의 피함이 좋지 못하고 이익을 피하는 마음만을 오로지한다면 깨우쳐준들 어찌 좋은 경지에 이르겠으며, 너의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고 사(私)를 위하는 뜻이 굳다면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익을 피하는 마음만 오로지하면 도를 거스르게 되고 사를 위하는 뜻이 굳으면 공(公)을 멸하게 되는 것이니, 무엇보다 너의 그 피함, 너의 그 소견을 스스로 다스리고 보아야 한다.

21.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덜린다.

生事事生이요 省事事省이니라.

인간의 성격은 단순하지가 않다. 한 인간 속에 서로 모순되고 반발하는 여러 가지 성격이 뒤섞여 있다. 결국 성격 자체가 인간인 것이다.

세네카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던 것을 상기(想起)할 때마다 유쾌하다. “고 술회하였다.
1.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이 한번 기울면 돌이킬 수 없듯이 성품이 한번 놓아지면 돌아오지 않나니, 물을 제어(制御)하려는 이가 독으로 제어하듯이 성품을 제어하려는 이는 반드시 예법(禮法)으로 해야 한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人性이 如水하여, 水一傾不可復이요 性一縱則不可反이니 制水者는 必以堤防하고 制性者는 必以禮法이니라.

2. 한때의 분함을 참아라, 백 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忍一時之忿이면 免百日之憂니라.

3. 참고 또 참아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커진다.

得忍且忍이요 得戒且戒하라. 不忍不戒면 小事成大니라.

4. 어리석고 흐린 이가 남을 꾸짖고 성내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하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 위에 불길을 붙이지 말고 단지 켜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잘하고 잘못함은 집집마다 있는 법이요, 덥고 서늘함은 곳곳이 마찬가지다.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본래 실상(實相)이 없어 결국에는 다 부질

없는 것이 되고 만다.

愚濁生嗔怒는 皆因理不通이라, 休添心上火하고 只作耳邊風하라. 長短은 家家有요 炎涼은 處處同이라. 是非無相實하여 究竟摠成空이니라.

루소가 갈파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은 참다움 인내의 미덕을 말해 준다.
5. 자장(子張)이 떠나고자 하여 공자에게 하직하면서 수신의 요체가 될 한 마디 교훈을 청했다.

공자 가로되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는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가로되 “참으면 어떠합니까?”

공자 가로되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 나 갈 것이요,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높아 질 것이요, 형제끼리 참으면 집이 부귀해질 것이요, 부부끼리 참으면 일생을 해로하게 될 것이요, 벗끼리 참으면 서로 명예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해(禍害)가 없으리라.”

자장이 가로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 가로되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마저 없어질 것이요, 관리가 참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요, 형제끼리 참지 않으면 갈라져 살게 될 것이요, 부부끼리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할 것이요, 벗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성길 것이요,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자장이 가로되 “좋고도 좋은 말씀! 참기 어려움이여, 참기 어려움이여! 사람이 아니라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子張이 欲行에 辭於夫子할새 願賜一言爲修

身之美한대 子曰, 百行之本이 忍之爲上이니
라. 子張이 曰, 何爲忍之닛고, 子曰, 天子忍
之면 國無害하고, 諸侯忍之면 成其大하고,
官吏忍之면 進其位하고, 兄弟忍之면 家富貴
하고, 夫妻忍之면 終其世하고, 朋友忍之면
名不廢하고, 自身이 忍之면 無禍害니라. 子
張이 曰, 不忍則如何닛고. 子曰, 天子不忍이
면 國空虛하고, 諸侯不忍이면 喪其軀하고,
官吏不忍이면 刑法誅하고, 兄弟不忍이면 各
分居하고, 夫妻不忍이면 令子孤하고, 朋友不
忍이면 情意疎하고, 自身이 不忍이면 患不
除니라. 子張이 曰, 善哉善哉라. 難忍難忍이
여, 非人이면 不忍이요 不忍이면 非人이로
다.

◇자장(子張): 공자의 제자로 성은 전손(顓孫), 이름은 사(師). 자장(子張)은 그의 자(字)이다. ◇부자(夫子): 스승이나 나이 많은 어른에 대한 존칭으로 특정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나 유생(儒生)들 사이에 ‘부자’ 라면 으레 공자를 가리킨다. ◇천자(天子): 고대 중국에서 제왕을 가리켜 천자라 했다. 하늘의 아들로써 하늘로부터 지상을 통치할 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란 의미다. ◇제후(諸侯): 중국 봉건 시대에 천자로부터 일정한 봉토를 받아 그 영내를 다스렸던 각 급의 지배자.

[풀이] 공자는 “참는 것이 으뜸” 이라 하고, 다시 자장의 물음에 답하여 ‘참음’ 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와 ‘참지 않음’ 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각 급의 사람 및 관계에 준하여 말했다. 요컨대 위로 제왕에서 아래로 평민에 이르기까지 참는 자에게는 이로움이, 참지 않는 자에게는 해로움이 따른다는 말이다.

스위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랑은 사고 팔지 못한다. 다만 그 대가는 사랑이다.”

6. 자기를 양보하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

위에 처할 수 있을 것이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되리라. (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屈己者는 能處重하고 好勝者는 必遇敵이니라.

7. 악인이 선인을 꾸짖어 대거든 선인은 도무지 응대하질 말 일이다. 응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조용한 데 비해, 꾸짖는 이는 입이 뚫어오르는구나. 이는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도로 제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惡人이 罵善人커든 善人은 摠不對하라. 不對에 心淸閑이요, 罵者는 口熱沸라. 正如人唾天이면 還從己身墜니라.

8. 내가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듣더라도 짐짓 귀먹은 체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 일이다. 비유하자면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도무지 그의 입술과 혀만 뒤눌려질 뿐이다.

我若被人罵라도 佯聾不分說하라. 譬如火燒空하여 不救自然滅이라. 我心은 等虛空이어 摠爾翻唇舌이니라.

9.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 두어라. 뒷날에도 서로 좋은 닻으로 보게 되리라.

凡事에 留人情이면, 後來에 好相見이니라.

인간에게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 지식에 대한 욕망은 인류 문명이 향상으로 치닫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칸트는 “학문이 있는 후에 선견(先見)이 있고, 선견이 있는 후에 역행(力行)이 있을 수 있다. “고 했다.

1. 많이 배우고 뜻을 튼튼히 하고, 잘 묻고 잘 생각하면 인은 그 속에 있다.(孔子)

子曰, 博學而篤志하고, 切問而近思면 仁在其中矣니라.

[풀이] 인을 행하는 기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널리 배워 닦으려는 뜻을 돈독히 하고 실제에 있어 절실한 물음을 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평상의 도리와 그 도리의 실행을 생각한다면 인을 실현하는 기틀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유교의 최고 이상인 인에 도달하는 길을 말한 것이다.

2.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아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서 사방의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莊子)

莊子曰, 人之不學은 如登天而無術하고, 學而智遠이면 如披祥雲而觀青天하고, 登高山而望四海니라.

[풀이] 용이 아무런 조화의 재주도 없이 어떻게 하늘에 오를 수 있겠는가.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지혜의 하늘을 날기 위한 날개를 갖추는 일이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 보라.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듯, 높은

산에 올라 온 세상을 내려다보듯 온갖 사물의 이치가 활짝 열려 보이리라.

3. 욕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禮記)

禮記에 曰, 玉不琢이면 不成器하고, 人不學이면 不知義니라.

◇예기(禮記): 한나라의 대성(戴聖)이 편 집·저술한 고대 중국의 제도 및 예법에 관한 책으로 유교 오경(五經) 가운데 하나이다.

[풀이] 욕으로 하나의 그릇을 만들려면 다듬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를 알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배워서 인간의 도리를 알고 인간 생활의 바른 길을 알아야 한다.

키케로는 “욕체에는 식물, 정신에는 교양이 필수이다.” 라고 말했다.

4.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太公)

太公이 曰, 人生不學이면 如冥冥夜行이니라.

[풀이] 사람이 배워서 세상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마치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령 캄캄한 밤길에서 앞길에 깊은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 해도 그것을 보지 못해 빠질 것이요,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치가 둘러 있다 해도 그 좋음을 완상(玩賞)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리라는 말이다.

임강수가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바가 아니며 학문을 배워서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한 말의 근본 뜻은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5. 사람이 고금(古今)을 통하지 못하면 마소에 옷을 입혀 둔 것과 같다.(韓文公)

韓文公이 曰, 人不通古今이면 馬牛而襟裾니라.

◇한문공(韓文公): 당대(唐代)의 유명한 문장가 한퇴지(韓退之)를 가리킨다. 문공(文公)은 그의 시호, 퇴지(退之)는 자(字), 이름은 유(愈)다. 유학의 중흥을 꾀하는 한편 문학상으로는 고문(古文)으로의 복귀를 제창하고 실천했다. 문집으로 [한창려전집(韓昌黎全集)]이 전한다.

[풀이] 사람이 배우지 못해 고금이 온갖 사물을 알지 못한 채 살아 간다면 저 식색(食色)의 본능으로만 살고 있는 마소에 옷을 입혀 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6.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배움을 그쳐서는 안 될 일이고, 집이 만약 넉넉하더라도 그 넉넉함을 믿고 배움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일이다. 가난한 이가 만약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입신(立身)할 수 있고 넉넉한 이가 만약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이름이 더욱 빛나리니, 오직 배우는 사람이 입신 출세함을 보았고 배우는 사람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바로 세상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이에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되나니, 뒷날 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각자 힘쓸 일이다.(朱文公)

朱文公이 曰, 家若貧이라도 不可因貧而廢學이요, 家若富라도 不可恃富而怠學이니라. 貧若勤學이면 可以立身이요 富若勤學이면 名乃光榮하리니 惟見學者顯達이요 不見學者無成이니라. 學者는 乃身之寶요 學者는 乃世之珍이니라. 是故로 學者 乃爲君子요 不學

則爲小人이니 後之學者는 宜各勉之니라.

[풀이] 집이 가난하다는 핑계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만약 집이 넉넉하더라도 그 넉넉함을 믿고 배움에 게을러도 안 될 일이다. 가난한 이도 넉넉한 이도 다 같이 부지런히 배울 일이니, 가난한 이가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그는 능히 입신할 수 있을 것이며, 넉넉한 이가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그의 이름은 더욱 영광될 것이다. 세상을 살펴보면 배우는 사람이 입신 출세하는 것만을 볼 수 있고, 배우는 사람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란 일찍이 없었다. 배움이란 자신의 보배요, 배우면 귀함을 받는 군자가 될 것이요, 배우지 않으면 비천한 소인이 될 것이다. 뒷날의 모든 사람도 모름지기 배움에 힘쓸 일이다.

에머슨은 “교양은 그 사람의 진가를 표현하게 한다.” 고 말했다.

7. 배운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쭉과 같구나. 벼와 같음이며, 나라의 요긴한 양식이요 세상의 큰 보배로구나. 쭉과 같음이며, 밭가는 이는 꺼려하고 김 매는 이는 귀찮아 하는구나. 뒷날 담을 대한 듯 답답함에 뉘우쳐도 이미 늙었으리라.(徽宗皇帝)

徽宗皇帝 曰, 學者는 如禾如稻하고 不學者는 如蒿如草로다. 如禾如稻兮여, 國之精糧이요 世之大寶로다. 如蒿如草兮여, 耕者憎嫌하고 鋤者煩惱니라. 他日面牆에 悔之已老로다.

◇휘종황제(徽宗皇帝): 송(宋)의 제8대 황제, 예술을 애호했고 그 자신도 뛰어난 화가였다.

[풀이] 배운 사람은 곡식 가운데 벼처럼 귀중히 여겨지나,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잡초인 쭉처럼 하찮게 여겨진다. 배운 사람은 벼와

같기에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세상의 보배로운 존재이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과 같기에 배운 사람들 사회에서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존재이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워 그 정신의 안목을 넓혀 두지 않으면 뒷날 마치 담벼락을 바라보듯 답답하기 한이 없으리니 그 때에야 배우지 않았음을 뉘우쳐도 이미 때는 늦으리라.

8. 배우기를 늘 미치지 못한 것같이 하고, 오직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論語)

論語에 曰, 學如不及이요, 惟恐失之니라.

◇논어(論語): 공자와 제자들의 언행을 모아 기록한 책.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이다.

[풀이] 배우기를 항상 수준에 닿지 못한 듯이 힘써 나아가고, 오직 배운 것을 잊을까 염려하라는 뜻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라고 위즈워드는 말했다. 부모는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으며,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국에 스마일즈는 “매일 한 시간씩 공부하여 일 년만 지내면 우매한 사람도 총명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1. 손님이 출입하지 않으면 집안이 비속(鄙俗)해지고, 시서(詩書)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賓客不來면 門戶俗하고, 詩書無敎면 子孫愚니라.

◇시서(詩書): 중국 고전인 [시경]과 [서경]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학문’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풀이] 점잖은 손님이 출입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저속해짐을 면하지 못하고, 자손에게 글을 가르쳐 일깨우지 않으면 그 자손이 어리석어지는 법이다.

2.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비록 뛰어나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莊子)

莊子曰, 事雖小나 不作이면 不成 이요, 子誰賢이나 不敎면 不明 이니라.

[풀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착수해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령 자손이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다 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총명해지지 않는다.

3.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손에게 경전(經典)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千金)을 물려준다 해도

한 가지 재주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漢書)

漢書에 云하되, 萬金滿贏이 不如敎子一經 이요, 賜子千金이 不如敎子一藝니라.

◇한서(漢書): 사서(史書).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

플라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무식은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4.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한 것이 없고, 지극히 필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至樂은 莫如讀書요, 至要는 莫如敎子니라.

5. 안으로 훌륭한 부모 형제가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 없이 능히 이루어 낸 사람은 드물다.(呂榮公)

呂榮公이 曰, 內無賢父兄하고 外無嚴師友而能有成者는 鮮矣니라.

◇여형공(呂榮公): 북송(北宋) 때의 학자로 이름은 희철(希哲)

[풀이] 일찍이 가정에 훌륭한 부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고서 훌륭한 인격을 이룬 사람은 드물다.

6. 남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것이요, 여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거칠고 꼼꼼하지 못하리라.(太公)

太公이 曰, 男子失敎면 長必頑愚하고, 女子失敎면 長必麤疎니라.

[풀이] 남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식견

이 넓어지지 못해 자라선 반드시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것이요, 여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절의 본분을 알지 못해 자라선 반드시 몸가짐이며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자상(仔詳)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기만 할 것이다.

영국의 사무엘 존슨은 “진정한 가정 교육은 진정한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고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말했다.

7. 사내아이가 나이 들어 가거든 풍악과 술을 익히지 말도록 하고, 계집아이가 나이 들어 가거든 노닐고 돌아다니게 하지 마라.

男年長大어든 莫習樂酒하고, 女年長大어든 莫令遊走하라.

[풀이]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려는 옛 지침이다. 사내아이가 장성해 가거든 풍악과 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라. 풍악과 술에 빠져들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계집아이가 장성해 가거든 노닐고 돌아다니면 방종하지 않도록 하라. 이같이 방종하면 마음이 헤쳐지고 마침내 몸을 망치게 될 것이다.

8.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낸다.

嚴父는 出孝子하고, 嚴母는 出孝女니라.

[풀이] 대개 아들 교육은 아버지에게, 딸 교육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 아들 교육에 엄격한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아들 즉 효자를 길러 내고, 딸 교육에 엄격한 어머니는 그만큼 현숙한 딸 즉 효녀를 길러 낸다.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9. 귀여운 아이에겐 매질을 많이 하고, 미운 아이에겐 밥을 많이 주어라.

憐兒엔 多與棒이요, 憎兒엔 多與食이니라.

[풀이]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속담이다. 아이가 귀여우니까 그를 보다 훌륭하게 교육시키려는 욕망이 솟고 따라서 매질을 많이 하게 된다. 자식을 진정으로 귀여워하거든 매질을 아끼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10. 세상 사람 모두 구슬과 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다만 자손의 훌륭함을 사랑한다.

人皆愛珠玉하되 我愛子孫賢이니라.

[풀이] 구슬과 옥이 아무리 값진 물건이기로서니 자손 훌륭함에야 당할 수 있을까. 구슬과 옥은 내 손에 있다가 다른 이의 손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값에도 한계가 있지만, 자손 훌륭함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 훌륭함을 사랑하겠다는 말이다.

인간은 성찰에 의해서 발전적인 요인을 찾는다. 상승하여 간다는 것은, 즉 뛰어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참다운 내적 성찰의 결과이다.

“충절(忠節)은 치욕을 개의하지 않는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1. 보화(寶貨)는 쓰면 다함이 있되 충효(忠孝)는 바칠수록 다함이 없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寶貨는 用之有盡이요 忠孝는 享之無窮이니라.

[풀이] 보화는 물질적인 가치이지만 충효는 정신적인 가치이다.

2. 집안이 화목하다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의롭지가 않으면 부자인들 무엇 하랴. 다만 한 자식의 효도가 있다면 자손이 많아서 무엇하랴.

家和貧也好 어니와 不義면 富如何오. 但一子孝면 何用子孫多리요.

3.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는 까닭이요, 남편에게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진 때문이다. 말이 많아 말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 탓이요, 의가 끊어지고 친분이 성기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父不憂心은 因子孝요, 夫無煩惱는 是妻賢이라. 言多語失은 皆人酒요, 義斷親疎는 只爲錢이라.

4. 이미 비상한 즐거움을 취했거든 모름지기 예측할 수 없는 근심에 대비하라.

既取非常樂이어든 須防不測憂니라.

[풀이] 즐거움의 이웃은 근심이다. 보통의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것은 즐거움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인생사이다.

우리 속담에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5. 총애(寵愛)를 받거든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함에 거(居)하거든 위태함을 생각하라.

得寵思辱하고, 居安慮危니라.

[풀이] 사람의 일은 변화 무쌍한 것, 총애(寵愛)가 언제 곤욕(困辱)으로 변할지 모르고, 편안함이 언제 위태함으로 바뀔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라는 말이다.

6.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욕됨도 얇고 이로움이 무거우면 해로움도 깊다.

榮輕辱淺이요 利重害深이니라.

[풀이] 산이 높으면 골도 따라 깊고 산이 낮으면 골도 따라 얇은 법. 영화가 가볍다고 불만스럽게 여기지 말라. 영화가 다하여 욕됨이 올 때 그 욕됨도 따라 얇으리라. 이익이 무겁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 이익이 변하여 손해가 될 때 그 해 또한 깊으리라.

7. 사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소모(消耗)를 하게 되고, 기쁨받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혈뜬음을 받는다. 기뻐함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하게 되고, 뇌물 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히 멸망하리라.

甚愛必心費요 甚譽必甚毀니라. 甚喜必甚憂요 甚賊必甚亡이니라.

[풀이]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그 반비례로

심한 반대의 것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사랑함이 지나치면 반드시 물심(物心)을 심하게 소모하고, 칭찬받음이 심하면 그것이 바뀔 때는 그만큼 심한 혈똥음을 받는다. 기쁨은 물러갈 때에 또 그만큼 심한 근심을 안겨주고 떠나는 법이요, 뇌물을 몹시 탐하면 그 멸망 또한 그에 상응할 만큼 가혹한 법이다.

영국 속담에 “현자(賢者)는 남의 잘못을 보고 자기를 바르게 한다.”는 말이 있다.
8. 높은 벼랑을 보지 않으면 어찌 굴러떨어지는 환난(患難)을 알겠으며, 깊은 못에 임하지 않으면 어찌 빠져죽는 환난을 알겠으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드센 풍파의 환난을 알리.(孔子)

子曰, 不觀高崖면 何以知顛墜之患이며, 不臨深淵이면 何以知沒溺之患이며, 不觀巨海면 何以知風波之患이리오.

9.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 보라.

欲知未來인댄 先察已然이니라.

[풀이] 모든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변화의 국면은 서로 다름지언정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일련의 원리는 결국 같은 것의 반복이다. 미래를 예측하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 보라는 말이다.

10.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수단이요, 지나간 것은 현재를 알게 하는 길이다.(孔子)

子曰, 明鏡은 所以察形이요, 往者는 所以知今이니라.

[풀이] 얼굴을 살피기 위해선 거울에 비추어보듯이, 현재의 상황을 알기 위해선 지나

간 것을 밝혀 보라. 지나간 것은 이제를 알게 하는 길이다. 지나간 것에는 현재를 초래한 요인이 자라나 있을 것이고, 현재 상황의 계기를 만드는 원리를 지나간 것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1. 지나간 일은 밝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칠흑 같다.

過去事는 如明鏡이요 未來事는 暗似漆이니라.

[풀이] 지나간 일은 누구나 소상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누가 알랴. 언제 어떤 길흉 화복이 닥쳐올지, 그것은 저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에 잠겨 있는 것이다.

영국의 러스킨은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은 살 때를 모른다.”고 말했다.

12. 내일 아침의 일을 오늘 해질 녘에 기약할 수 없고, 해질녘의 일을 포시(晡時)에 기약할 수 없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明朝之事를 薄暮에 不可必이요 薄暮之事를 晡時에 不可必이니라.

◇포시(晡時):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4시 무렵.

[풀이] 아무도 내일을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은 저 비밀스러운 운명의 주재(主宰)하에 있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해질녘에 꼭 기약할 수 없고, 해질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서너시 무렵에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일이다.

13.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의 화와 복이 있다.

天有不測風雨하고, 人有朝夕禍福이니라.

[풀이] 흐렸다 개고, 개어 있는가 하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닥치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氣象) 변화가 하늘에 있다. 사람 일 또한 그렇다. 아침에 복이 왔는가 하면 저녁에 화가 닥치고, 저녁에 곱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침엔 좋은 일을 만나는 실로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변전(變轉)이 사람에게 있다.

14. 아직 석 자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선 백년의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석 자 흙으로 돌아가선 백 년의 무덤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未歸三尺土하여선 難保百年身이요, 已歸三尺土하여선 難保百年墳이니라.

[풀이] ‘석 자 흙’이란 곧 무덤을 말한다. 아직 무덤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백 년 동안 만이라도 그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이미 무덤으로 돌아가선 백 년 동안만이라도 그 무덤을 고이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그렇게 무상한 것이다.

칸트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15.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마룻대와 들보의 재목이 이루어지고, 물을 잘 기르면 근원이 왕성하고 흐름이 길어서 관개(灌溉)의 이로움이 널리 베풀어진다. 사람을 잘 기르면 지기(志氣)가 크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의(忠義)의 선비가 나오나니 어찌 기르지 아니하랴.(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木有所養則根本固而枝葉茂하여 棟樑之材 成하고, 水有所養則泉源壯而流派長하여 灌溉之利 博하고, 人有所養則志氣大而識見明하여 忠義之士 出이니 可不

養哉아.

“믿지 못할 벗은 적만도 못하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16. 스스로를 믿는 이는 남도 믿어서 오·월(吳越)끼리라도 다 형제일 수 있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는 남도 의심하여 제 몸 외에는 모두 적국(敵國)이리라.

自身者는 人亦信之하여 吳越이 皆兄弟요, 自疑者는 人亦疑之하여 身外 皆敵國이니라.

◇오·월(吳越): 중국 춘추 시대 말기의 두 나라로 오(吳)는 현재의 강소성(江蘇省)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월(越)은 지금의 절강·복건성(浙江·福建省)등의 지역에 위치했는데 두 나라는 개와 원숭이 사이와 같은 적대 관계에 있었다.

[풀이] 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믿는다. 남이 모두 참되지는 않지만 저 혼자 마음은 참되리라 제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믿기 때문이니, 이런 사람이라면 저 오(吳)나라와 월(越)나라 같은 원수 사이라도 다 형제처럼 믿고 지낸다. 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남도 의심한다.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리라 제 마음을 짚어 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니, 이런 사람은 제 몸 외에는 모두 적국(敵國)처럼 여긴다.

17.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疑人莫用하고 用人勿疑니라.

18. 물 밑에 잠긴 고기는 깊어도 낚을 수 있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는 높아도 쏘아 잡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지척간에 있음에도 이 지척간에 있는 사람의 마음만은 헤아릴 수 없구나.

諷諫에 云하되, 水底漁天邊雁은 高可射兮低可釣어니와, 惟有人心咫尺間에 咫尺人心은 不可料니라.

[풀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움을 말한 글이다.

영국의 사무엘 존슨은 “처음 만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고 했다.
19. 범을 그리되 가죽은 그리지만 그 뼈를 그리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그 마음은 알 수 없다.

畫虎畫皮難畫骨이요, 知人知面不知心이니라

20. 얼굴을 대하여 말은 서로 주고받지만, 마음 사이에는 겹겹 산들이 가로막혀 있다.

對面共話하되, 心隔千山이니라.

21.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죽고 나도 끝내 그 마음을 알 수 없구나.

海枯면 終見底로되, 人死엔 不知心이니라.

[풀이] 사람 마음의 진실은 저 알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뜻이다.

22. 무릇 사람이란 앞질러 점칠 수 없다. 바닷물의 양을 잴 수 없듯이.(太公)

太公이 曰, 凡人은 不可逆相이요, 海水는 不可斗量이니라.

23. 남과 원한 맺는 것을 가리켜 ‘화의 씨앗을 심는 것’ 이라 하고,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스스로를 해치는 일’ 이라 한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結怨於人을 謂之種禍요,

捨善不爲를 謂之自賊이니라.

[풀이] 원한이 원한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때문에 남에게 원한을 품게 한다는 것은 뒷날에 터질 앙화(殃禍)의 씨앗을 스스로 심는 짓이라 하겠다.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선이란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할 가치인데도 그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인간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간 사회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배척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24. 만약 한 쪽 말만 들으면 자칫 친한 사이가 멀어지리라.

若聽一面說이면 便見相離別이니라.

“빈곤은 벼를 시험한다.” 는 영국 속담이 있다.
25. 배부르고 다사로움에서 음욕(淫慾)이 생겨나고, 배고프고 춥워보아야 도심(道心)이 싹튼다.

飽煖에 思淫慾하고, 飢寒에 發道心이니라.

[풀이] 가난하게 지낼 때 뜻이 높고 지조가 있던 사람이 살림이 넉넉해지자 오히려 속되고 추하게 타락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사람이 어떤 진실에 부딪치는 것은 배고프고 추운 절박한 상황에서이다. 배부르고 다사로움에서 음욕(淫慾)이 생겨나고 배고프고 추워 보아야 도심(道心)이 생기나니, 모름지기 살림이 넉넉할 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26. 어진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지조를 손상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허물을 더하게 된다.(疏廣)

疏廣이 曰, 賢人多財則損其志하고, 愚人多財則益其過니라.

◇소광(疏廣): 전한(前漢) 선제(宣帝)때의 사람으로 [춘추(春秋)]에 정통했다. 태자(太子)의 스승이 되어 5년 동안 재직하다 노경(老境)을 이유로 사퇴하자 선제와 태자가 후한 재물을 내렸으나, 그는 그 재물을 모두 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재산을 늘리는 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떤 이가 그에게 그 재물을 자손을 위한 재산으로 남겨 두기를 권하자 소광은 바로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27.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도 지혜로워 진다.

人貧智短하고 福至心靈이니라.

[풀이] 사람이 결코 가난해서도 안 될 일이다. 가난하면 지혜 있는 사람도 생활에 쪼들리고 오그라들어 그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곧 지혜가 얕아진다는 말이다. 반면 유복해지면 위축된 마음도 활기를 띠고 영민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8.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不經一事면 不長一智니라.

영구의 베이컨은 “덕은 향기와 같다. 이를 깨면 깥수록 향기롭다.” 고 했다.

29. 시비(是非)가 종일토록 있더라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是非終日有라도 不聽이면 自然無니라.

[풀이] 손바닥 하나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설령 옳으니 그르니 종일 말썽이 일어나도 어느 한 편이 듣지 않아 보라. 그 말썽은 저절로 사라지고 만다.

30. 와서 시비를 이야기하는 이는 곧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來說是非者는 便是是非人이니라.

[풀이] 옳으니 그르니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내게 와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하고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31. 평생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사람이 없으리라. 위대한 명성이 어찌 저 미련한 돌에다 새기는 데에 있겠는가. 길바닥 행인의 입술이 비(碑)를 이김에라.(擊壤詩)

擊壤詩에 云하되, 平生에 不作皺眉事면 世上에 應無切齒人이라. 大名이 豈在鑄頑石가. 路上行人口가 勝碑니라.

[풀이] 돌에다 새겨 굳이 비석을 세워야만 전하게 되는 명성은 참으로 위대한 명성이 아니다. 저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승되는 찬양의 애기들, 그 구비(口碑)에 새겨지는 명성이 굳이 비석에 새겨지는 명성을 능가하는 법이다.

32. 사향(麝香)을 지녔으면 저절로 향기가 풍겨나리니 어찌 꼭 바람을 맞아설까 보냐.

有麝면 自然香이니 何必當風立가.

◇사향(麝香): 궁노루 수놈의 배꼽과 불두덩을 싸고 있는 향낭(香囊)을 채취해서 건사한 향료.

[풀이] 참말로 사향을 지녔다면 어디서나 저절로 그 향기가 풍기게 마련이다. 향내를 피우기 위해 어찌 꼭 바람을 맞아 서야만 될까 보나. 참으로 고명(高名)한 학덕(學德)을 지녔다면 스스로 자랑하러 나서지 않더라도 저절로 세상에 알려지게 마련이니, 스스로 자랑하러 나서는 학덕이라면 참으로 고명한 학덕은 아니라는 말이다.

세네카는 “빈 주머니가 된 뒤의 경제는 이미 늦었다.” 고 말했다.
33. 복록(福祿)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록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지리라. 세력을 지녔다고 마구 부리지 말라. 세력이 다하면 원한에 찬 사람과 만난다. 복록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절제하고 세력을 지녔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에서 교만과 사치는 처음에는 있으나 흔히 나중에는 없는 것이다.

有福莫享盡하라, 福盡身貧窮이라. 有勢莫使盡하라, 勢盡冤相逢이니라. 福兮常自惜하고 勢兮常自恭하라. 人生驕與侈가 有始多無終이니라.

34. 여유를 두고 재주를 다 쓰지 않았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리라. 여유를 두고 봉록(俸祿)을 다 쓰지 않았다가 조정에 돌려주리라. 여유를 두고 재물을 다 쓰지 않았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리라. 여유를 두고 복을 다 누리지 않았다가 자손에게 돌려주리라. (王叅政 四留銘)

王叅政四留銘에 曰, 留有餘不盡之巧하야 以還造物하고, 留有餘不盡之祿하야 以還朝廷하고, 留有餘不盡之財하야 以還百姓하고, 留有餘不盡之福하야 以還子孫이니라.

◇왕참정(王叅政): 북송(北宋) 진종(眞宗)때의 정치가로 이름은 단(旦). ◇사류명(四留銘): 네 가지 ‘남겨 둬’에 관한 명문(銘)

文)

[풀이] 재주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재주를 다 부리지 말 일이다. 죽어 돌아가 조물주에게 돌려보낼 수도 있는 여유를 두라. 봉록(俸祿)을 받았다고 해서 양껏 다 쓰지 말 일이다. 오히려 나라에 반환할 수도 있는 여유를 두라.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있는 대로 다 쓰지 말 일이다. 백성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여유를 두라. 복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껏 다 누리지 말 일이다.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여유를 두라. 이처럼 뭔가 여유를 두고 양껏 깡그리 탕진하지 말일이니 탕진 뒤의 쪼들림, 그 쪼들림의 벽에 부딪칠 때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다.

35. 황금 천 냥이 소중할 것이 없고, 사람에게서 좋은 말 한 마디 듣는 것이 천금(千金)보다 낫다.

黃金千兩이 未爲貴요, 得人一語勝千金이니라.

36.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종이다.

巧者는 拙之奴니라.

[풀이] 뭔가 잘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그걸 못하는 사람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라, 세상엔 뭔가 잘하는 사람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 간접 또는 직접으로 내는 보수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능한 기능을 그 방면의 못하는 사람을 위해 바치고 있지 않은가. 잘하는 사람이여, 켜 체하지 말라. 못하는 사람이여, 슬퍼하지 말라.

37.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요, 안락함이 보다 값진 것이다.

黃金이 未是貴요 安樂이 值錢多니라.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남의 마음을 얻는 데 소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울드 스미스의 말이다.

38. 제 집에 있어 손님을 맞아들일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에 비로소 주인 적음을 알리라.

在家에 不會邀賓客이면 出外라야 方知少主人이니라.

[풀이] 제 집에 있어 제가 주인의 입장일 때 손님을 맞아 접대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집에 손님이 되어 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아 주는 주인이 적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39. 가난하게 살면 비록 잡다한 저자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이가 없을 것이요, 넉넉하게 살면 비록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 곳에서 찾아드는 친구가 있다.

貧居鬧市無相識이요, 富往深山有遠親이니라.

40. 사람의 정의는 다 가난한 데서 끊어지고 세속 인정은 곧잘 돈 있는 집으로 쏠린다.

人義는 盡從貧處斷이요 世情은 便向有錢家니라.

41.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를 막을지언정 코 아래 가로지른 것은 막기 어렵다.

寧塞無底缸이언정 難塞鼻下橫이니라.

[풀이] ‘코 아래 가로지른 것’이란 ‘입’을 말한다. 말을 막기는 어렵다는 뜻.

42. 사람의 정은 다 군색한 가운데서 서먹서먹해진다.

人情은 皆爲窘中疎니라.

“술과 탁상은 벼를 만들고 또 벼를 잃는다.” 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43. 하늘에 교제(郊祭)를 지내고 사당(祠堂)에 제례(祭禮)를 올려도 술이 아니고선 흠향(歆饗)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과 신하, 벗과 벗 사이에도 술이 아니고선 정이 소담스럽지 않을 것이고,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함에도 술이 아니고선 권할 것이 없으니 술에는 성취와 실패가 있어 데면데면 마시지 못할 것이다.(史記)

史記에 曰, 郊天禮廟에 非酒不享이요, 君臣朋友에 非酒不美요, 鬪爭相和에 非酒不勸이라, 故로 酒有成敗而不可泛飲之니라.

◇사기(史記): 한(漢)나라의 사마천(司馬遷)이 저술한 역사책. ◇교제(郊祭):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도성의 남쪽 들에서 하늘에 드리던 제사.

44.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도로 받게 되는 법이다.

自作이 還自受니라.

45. 선비로서 도에 뜻을 두면서 좋지 않은 옷 입고 좋지 않은 음식 먹기를 부끄러워하는 이는 더불어 의논하기에 족하지 못하다.(孔子)

子曰, 士 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는 未足與議也니라.

46. 선비에게 투기하는 벗이 있으면 어진 친구와 친할 수 없고, 임금에게 투기하는 신하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오지 않는다.(荀子)

荀子曰, 士有妬友則賢交不親하고, 君有妬臣則賢人不至니라.

[풀이] 남을 시기하는 벗을 가까이 두면 어진 친구와 친해지기 어려우며 남을 시기하는 부하를 두면 어진 사람이 오기를 꺼려하는 법이다.

47. 하늘은 녹(祿)없는 사람을 낳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아니한다.

天不生無祿之人이요, 地不長無名之草니라.

“무엇이든지 7년만 모으면 쓰일 곳이 있을 것이다.”란 영국 속담이 있다.
48.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 있다.

大富는 由天하고 小富는 由勤이니라.

49. 집안을 이룰 아이는 인분도 금처럼 아끼고, 집안을 망칠 아이는 금도 인분처럼 쓴다.

成家之兒는 惜糞如金하고, 敗家之兒는 用金如糞이니라.

50. 편안하고 한가로이 지낼 때에 내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노라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거리가 없노라고 말하자 이내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상쾌한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마침내 질병이 생길 것이요, 마음에 쾌적한 일이라 해서 지나치게 누리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병이 생긴 뒤에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훌륭히 스스로 예방하는 것만 못한 법이다.(邵康節)

邵康節先生이 曰, 閑居에 慎勿說無妨하라, 纔說無妨便有妨이니라. 爽口物多終作疾이요, 決心事過必有殃이라. 與其病後能服藥으론

不若病前能自防이니라.

51. 아무리 신묘한 약이라 해도 원한 맺힌 병은 고치지 못하고, 뜻밖에 생기는 재물도 운수 궁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일을 생겨나게 하고서 일이 생기는 것을 그대는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고서 남이 해치는 것을 너희는 성내지 말라. 천지간 모든 일엔 자연히 인과 응보가 있는 법이니 멀게는 자손에게 있고 가까이는 제 몸에 있다.(杼潼帝君 垂訓)

杼潼帝君垂訓에 曰, 妙藥이 難醫冤債病이요, 橫財는 不富命窮人이라. 生事事生을 君莫怨하고 害人人害를 汝休嗔하라. 天地自然皆有報하니 遠在兒孫近在身이니라.

◇자동제군(杼潼帝君): ‘제군(帝君)’은 신에 대한 존칭. 자동제군은 도가에서 우러러 믿는 신의 하나이다.

[풀이] 남에게 원한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에게 원한을 갖게 하면 두고두고 씻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하게 얻은 재산이 아니면 진실한 재산이 아니다.”란 포르투갈 속담이 있다.

52.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지는 것, 비단옷 베옷도 바뀌어 입혀지는 법, 부잣집도 항상 부귀한 것은 아니요, 가난한 집도 길이 적막하지는 않으리. 사람을 붙들어올림에 반드시 저 푸른 하늘에까지 받쳐올린 못하고, 사람을 밀어뜨림에 반드시 저 깊은 구멍에다 아주 처박지는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무릇 일을 두고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본디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花落花開開又落하고, 錦衣布衣更換着이라. 豪家도 未必常富貴요, 貧家도 未必長寂寞이

라. 扶人에 未必上青霄요, 推人에 未必填邱壑이라. 勸君凡事를 莫怨天하라. 天意於人에 無厚薄이니라.

53. 한탄스럽구나, 사람의 마음 사납기가 뱀 같음.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구르는 것을 그 누가 알랴. 지난 해에 망령되이 동녘 이웃의 물건을 취하더니 오늘엔 어느덧 북녘 집으로 돌아갔구나. 불의(不義)로 취한 재물은 끓는 물에 뿌려지는 눈(雪)이요, 뜻밖에 얻은 논밭은 물살에 밀리는 모래인 것을. 교활한 피를 생활하는 방법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흡사 아침에 피어 오르는 구름,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것.

堪歎人心이 毒似蛇라. 誰知天眼이 轉如車요, 去年에 妄取東隣物하더니 今日에 還歸北舍家라. 無義錢財는 湯潑雪이요, 儻來田地는 水推沙라. 若將狡譎爲生計면 恰似朝雲暮落花라.

54. 재상의 목숨을 고칠 약이 없고, 돈으로도 자손의 똑똑함은 사지 못한다.

無藥可醫卿相壽요, 有錢難買子孫賢이니라.

[풀이] 아무리 권세가 당당한 재상이라 해도 그 앞에는 꿈쩍 못할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죽음’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사들이지 못할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손의 현명함’이다.

아서 영은 “진정한 지혜는 행복을 살 수 있는 대가이다.”라고 말했다.
55. 하루가 맑고 한가로우면 이 곧 하루의 신선(神仙)인 것을.

一日淸閑이면 一日仙이니라.

[풀이] 신선이 별다르랴, 하루를 마음 맑고 한가로이 지낸다면 이것이 곧 하루의 신선

인 것을.

56. 위태함을 알고 험함을 알면 내내 덧없을 것이요, 착한 이를 추어올리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저절로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있으리라. 인을 배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을 보복하면 자손에게까지 환난을 끼칠 것이다. 남을 해치고 저만 이롭게 하면 마침내 출세하는 자손이 없을 것이요, 못사람을 해쳐서 성가(成家)를 한다면 어찌 그 부귀가 오래도록 계속되겠는가. 이름을 갖고 모습까지 다르게 해야 됨은 다 교언(巧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양화가 일어나 몸이 상하게 됨은 모두 어질지 못한 탓이다.(眞宗皇帝)

眞宗皇帝御製에 曰, 知危識險이면 終無羅網之門이요, 舉善薦賢이면 自有安身之路라. 施仁布德이면 乃世代之樂榮昌이요, 懷妬報冤이면 與子孫之爲患이라. 捐人利己면 終無顯達雲仍이요, 害衆成家면 豈有長久富貴리요. 改名異體는 皆因巧語而生이요, 禍己傷身은 皆是不仁之召니라.

◇진종 황제(眞宗皇帝): 송나라 제3대 황제.
◇나망(羅網): 새·짐승을 잡는 덫, 곧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일을 비유한 것. ◇운잉(雲仍): 먼 자손.

“온화하고 순량(順良)함은 선인(善人)의 가장 신성한 표징”
이라고 한 드라이든의 말은 참다운 인생의 길을 말해준다.

57. 도리에 벗어난 재물을 멀리 하고 정도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라. 이웃을 가려 살고 벼를 가려 사귀며,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척 가운데 가난한 이를 소홀히 말고 다른 사람 가운데 부귀한 이를 두둔하지 말라. 자기를 이겨내는 데는 근면과 검소로써

우선을 삼을 일이요, 못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겸양과 화목으로써 으뜸을 삼을 일이다. 항상 지나간 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매양 앞으로의 허물에 유념하라. 만일 나의 이 말에 의거한다면 나라와 집안이 다스려져 가히 장구하리라.(神宗皇帝)

神宗皇帝御製에 曰, 遠非道之財하고 戒過度之酒하며, 居必擇隣하고 交必擇友하며, 嫉妬를 勿起於心하고 纔言을 勿宣於口하며, 骨肉貧者를 莫疎하고, 他人富者를 莫厚하며, 克己는 以勤儉爲先하고 愛衆은 以謙和爲首하며, 常思已往之非하고, 每念未來之咎하라. 若依朕之斯言이면 治國家而可久니라.

◇신종 황제(神宗皇帝): 송나라 제6대 황제.

58. 깜박이는 불티 한 점이 능히 넓고 너른 숲을 태우고 반 마디 그릇된 말이 잘못되어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몸에 한낱 실오라기라도 감았거든 항상 베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에 밥 세 끼니를 물에 말아 먹어도 늘 농사짓는 이의 노고를 생각하라. 구차하게 탐하고 시기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필경 십 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해 가노라면 반드시 영화로운 자손이 있게 되리라. 복은 선함에 연유해 오는 것이니 그 실행을 쌓음에서 생겨나고, 평범하고 용렬함을 뛰쳐나와 성현(聖賢)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진다.(高宗皇帝)

高宗皇帝御製에 曰, 一星之火 能燒萬頃之薪하고 半句非言이 誤損平生之德이라. 身被一縷나 常思織女之勞하고, 日食三餐이나 每念農夫之若하라. 苟貧妬損은 終無十載安康하고, 積善存仁이면 必有榮華後裔니라. 福緣善慶하니 多因積行而生이요, 人聖超凡은 盡是眞實而得이니라.

◇고종 황제(高宗皇帝): 남송(南宋)의 초대

황제.

“좋은 본보기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스마일즈의 말은 감화(感化)의 중요함을 말해 준다.

59. 그 임금을 알려거든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려거든 먼저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려거든 먼저 그 아들을 보라. 임금이 어질고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아들이 효성스러운 법이다.(王良)

王良이 曰, 欲知其君인댄 先視其臣하고, 欲知其人인댄 先視其友하고, 欲知其父인댄 先視其子하라. 君聖臣忠하고 父慈子孝니라.

◇왕량(王良): 춘추 시대 진(晉)나라 사람.

60.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家語)

家語에 云하되, 水至淸則無魚하고 人至察則無徒니라.

◇공자 가어(孔子家語): 공자의 언행·일화와 제자들과의 문답을 수록한 책. 처음에는 스물 일곱 권이었으나 일부가 없어져 현존하는 것은 열 권인데, 그것도 위(魏)나라의 왕숙(王肅)이 공안국(孔安國)을 칭하여 위작(僞作)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61. 봄비가 기름 같지만 길 가는 사람은 그 질척함을 싫어하고, 가을 달이 휘영청 밝지만 도둑질하는 자는 그 비취짐을 싫어한다.(許敬宗)

許敬宗이 曰, 春雨如膏나 行人은 惡其泥濘하고, 秋月揚輝나 盜者는 惡其照鑑이니라.

◇허경종(許敬宗): 당나라 때의 정치가

[풀이] 봄비가 새싹에게 기름처럼 이로워도
길 가는 사람은 싫어할 것ियो, 가을달이
밝다지만 도둑에게는 싫을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다.

세네카는 “덕을 행할 여지는 늘 있다.” 고
말했다.

62. 대장부는 선(善) 알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무거이 여
긴다. 그리고 마음씀이 엄밀하기 때문에 살
고 죽는 것을 기리기 털보다 가벼이 여긴
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大丈夫 見善이 明故로 重
名節於泰山하고, 用心이 精故로 輕死生於鴻
毛니라.

◇명절(名節): 명분과 절의(節義) ◇홍모(鴻
毛): 기리기 털, 극히 가벼운 사물을 가리키
는 말이다.

63. 남의 흉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선함
을 즐거이 여기라. 또한 남의 급함을 건져
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원하여 주라.

悶人之凶하고 樂人之善하며, 濟人之急하고
救人之危니라.

64. 눈으로 직접 본 일이라도 오히려 다 진
실이 아닐 수 있거늘, 하물며 등 뒤의 말이
야 어찌 족히 깊이 믿겠는가.

經目之事도 恐未皆眞이어늘 背後之言을 豈
足深信이리오.

65. 제 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는구나.

不恨自家汲繩短이요, 只恨他家若井深이로다.

66. 뇌물을 먹고 법을 범한 자가 세상에 가
득하건만 박복한 사람만이 죄로 걸려드네.

臧濫이 滿天下하되 罪拘薄福人이니라.

“사람은 간난(艱難)의 진리를 버리고 행복의
오류를
택하기 쉽다.” 라고 한 베이컨의 말은
인성(人性)의 본질을 꿰뚫는다.

67. 하늘이 만약 상도(常道)를 벗어나는 때
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올 것ियो, 사
람이 만약 그 상도를 어기는 날엔 병나지
않으면 죽으리라.

天若改常이면 不風卽雨요, 人若改常이면 不
病卽死니라.

68. 나라가 바르게 되면 천심(天心)도 순해
지고 관청이 깨끗하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
해지리라. 아내가 어질면 그 남편의 화가
적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그 아버지의 마
음이 너그러워진다.

壯元詩에 云하되, 國正天心順이요 官淸民自
安이라. 妻賢夫禍少요 子孝父心寬이니라.

69. 나무는 먹줄을 좇음으로써 곧게 되고
사람은 간(諫)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해
진다.(孔子)

子曰, 木從繩則直하고 人受諫則聖이니라.

70. 한 줄기 푸른 산 경치가 그윽한데 앞
사람의 논밭을 뒷사람이 차지하는구나. 뒷
사람은 차지했다 해서 기뻐하지 말라, 다시
차지할 사람 뒤에 있으리니.

一派靑山景色幽러니 前人田土를 後人收라.
後人은 收得莫歡喜하라. 更有收人이 在後頭
니라.

[풀이] 무릇 재화(財貨)란 어느 한사람의 손아귀에 쥐어져 상주 부동(常住不動)하지 않는 것.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간다는 말이다.

71. 아무 까닭 없이 천금(千金)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으리라.(蘇東坡)

蘇東坡 曰, 無故而得千金이면 不有大福이라 必有大禍니라.

◇소동파(蘇東坡): 송나라 때의 유명한 문장가. 당송 팔대가(唐宋八代家)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적벽부(赤壁賦)]가 있다.

우리 속담에 “고자쟁이가 먼저 죽는다.”는 말이 있다.

72. “어떠한 것이 곧 화와 복이 되느냐?” 고 내게 점쳐 달라 묻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남을 허는 것이 곧 화가 되고, 남이 나를 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고 했다.(邵康節)

邵康節先生이 曰, 有人이 來問卜하되 如何是禍福고, 我虧人是禍요 人虧我是福이니라.

73. 큰 집 천 칸이라 해도 밤에 눕는 곳은 여덟 자뿐이요, 갖고 있는 좋은 땅이 넓다 해도 하루에 먹는 것은 두 되 뿐인 것을.

大廈千間이라도 夜臥八尺이요, 良田萬頃이라도 日食二升이니라.

74. 오래 머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자주 오면 친분도 성기어진다. 단 사흘인 닷새 사이에 서로 보는 것도 처음과는 같지 않음을 알겠더라.

久住면 令人賤이요 頻來면 親也疎라. 但看三五日에 相見不如初라.

[풀이] 친한 정을 나누는 데에도 적절한 절제를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 가는 데 이롭다.

75. 목마를 때 물 한방울은 단 이슬과 같고, 취한 뒤에 잔을 더함은 없음만 못하다.

渴時一滴은 如甘露요, 醉後添盃는 不如無니라.

76.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미색(美色)이 사람을 미혹(迷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것이다.

酒不醉人人自醉요, 色不迷人自迷니라.

[풀이] 주색(酒色), 사람들은 늘 이것 때문에 망신을 한다. 그러나 주색 자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주색만 탓한다.

77. 공(公)을 위하는 마음이 만약 사(私)를 위하는 마음만큼이라면 무슨 일에선들 옳고 그름을 가려 내지 못할까. 도를 향한 염원이 만약 남녀의 정념(情念)과 같다면 성불(成佛)한 지가 이미 오래이었으리라.

公心이 若比私心이면 何事不辨이며, 道念이 若同情念이면 成不多時니라.

위즈워드는 “대현(大賢)은 우(愚)와 비슷하다.” 고 했다.

78. 공교(工巧)한 이는 말을 잘하나 우졸(愚拙)한 이는 말이 없다. 공교한 이는 바둥거리 애쓰나 우졸한 이는 유유히 편안하다.

공교한 이는 패란(悖亂)스러우나 우줄한 이는 덕성(德性)스럽다. 공교한 이는 흉하나 우줄한 이는 길하다. 아아, 천하가 다 우줄하다면 형정(刑政)이 거두어져 위사람은 편안하고 아랫사람은 화순하며 풍속은 맑아지고 악폐(惡弊)는 끊어지리라.(濂溪先生)

濂溪先生이 曰, 巧者言하고 拙者默하며, 巧者勞하고 拙者逸하며, 巧者賊하고 拙者德하며, 巧者凶하고 拙者吉하나니, 嗚呼라 天下拙이면 刑政이 撤하여 上安下順하며 風清弊絶이니라.

◇염계 선생(濂溪先生): 성은 주(周), 이름은 돈이(敦頤), 염계(濂溪)는 별호이다. 북송(北宋)의 학자로 송학(宋學)의 시조, 저서로 [태극도설(太極圖說)]이 유명하다.

79. 덕이 없으면서 지위가 높고, 지혜 없으면서 피하는 것이 크다면 진실로 화를 당하지 않을 이 드물리라.(周易)

易에 曰, 德微而位尊하고, 智小而謀大면 無禍者 鮮矣니라.

◇역(易): [주역(周易)]을 일컫는다. 음(陰)·양(陽)과 팔괘(八卦)를 근간으로 주문왕(周文王)과 그의 아들 주공(周公), 공자에 의해 대성(大成)된 책. 괘사(卦辭), 효사(爻辭), 십익(十翼)으로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풀이] 제 분수에 맞게 처신함이 몸을 보전하는 안전한 길임을 알라는 말이다.

80. 다스리는 이의 도는 지위가 성취되는 데서 게을러지고, 병은 얼마간 치유(治癒)되는 데서 더해진다. 화는 게으른 데서 생겨나는 법이요, 효도는 처자를 갖는 데서 흐려지는 법이다. 이 네가지를 살피서 처음과 같이 나중에도 삼갈일이다.(說苑)

說苑에 曰, 官怠於宦成하고 病加於小愈하며, 禍生於懈怠하고 孝衰於妻子니, 察此四者하여 慎終如始니라.

◇설원(說苑): 전한(前漢)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 이름. 군도(君道)·신술(臣術)을 20편으로 분류하여 명사들의 일화를 열거한 책이다.

“열매가 많은 가지는 낮게 늘어진다.”는 영국 속담은 겸양의 미덕을 보여 주는 말이다.
81.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이지러진다.

器滿則溢하고 人滿則虧니라.

82. 양 고깃국이 비록 맛 좋으나 못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렵다.

羊羹이 雖美나 衆口는 難調니라.

83 한 자 옥구슬이 보배가 아니다. 한 치의 시간을 다투라.

尺璧이 非寶요, 寸陰을 是競이니라.

[풀이] 한 자(尺)나 되는 옥벽(玉璧)이라면 결코 작은 가치는 아니다. 그러나 그 한 자 짜리 옥벽 이상의 보배가 있다. 단 한 치의 시간, 이 시간을 단 한 치라도 아껴 쓸 일이다.

84. 흰 옥구슬은 진흙 가운데 던지더라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다. 군자는 부정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디어 내고 밝은 지혜는 위난(危難)을 건넌다.(益智書)

益智書에 云하되, 白玉은 投於泥塗라도 不

能汚穢其色이요, 君子는 行於濁地라도 不能
染亂其心하나니, 故로 松柏은 可以耐雪霜이
요, 明智는 可以涉危難이니라.

몽테뉴는 “사람이 낮을 붉히면 만사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했다.
85. 산에 들어가 범을 잡기는 쉽지만 입을
열어 남에게 고하기는 어렵다.

入山擒虎易어니와 開口告人難이니라.

[풀이] 뭔가 딱한 일을 남에게 고하기는 어
렵다. ‘염치(廉恥)’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 사람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지심(不忍之心)’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86.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
고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
다.

遠水는 不救近火요, 遠親은 不如近隣이니라.

87. 해와 달이 밝지만 덮어놓은 소래기 밑
은 비추지 못한다. 칼날이 잘 들지만 죄 없
는 사람은 베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재앙
은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지 않는다.(太公)

太公이 曰, 日月이 雖明이나 不照覆盆之下
하고, 刀刃이 雖快나 不斬無罪之人하고, 非
災橫禍는 不入愼家之門이니라.

[풀이] 평소에 매사를 조심한다면 뜻밖의
재앙을 당할 리가 없다는 말이다.

88. 넓고 너른 좋은 땅이라도 하찮은 재주
한 가지를 몸에 지니는 것만 못하다.(太公)

太公이 曰, 良田萬頃이 不如薄藝隨身이니라.

89. 사물을 접하는 요체(要諦)는 자신이 하

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과, 행하고자 얻음이 없으면 돌이켜 자기에
게서 원인을 찾는 일이다.(性理書)

性理書에 云하되, 接物之要는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고, 行有不得이어든 反求諸己니
라.

90. 술과 색과 재물과 분만(憤懣)의 네 담
장, 수많은 잘나고 못난 사람들 그 안 행랑
에 들어 있네. 그 누가 이곳을 뛰쳐나오기
만 한다면 그것이 곧 신선이 되는 불사(不
死)의 방법인 것을.

酒色財氣四堵牆에 多少賢愚在內廂이라. 若
有世人이 跳得出이면 便是神仙不死方이니
라.

인간 생활에는 지침이 있다. 생활에는 규범이 있으며 살아 가는 데는 제각기 타당한 요강(要綱)이 있다. 어떤 실천 원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실천 원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러스킨은 “인간은 인도(人道) 이상의 기품(氣品)이 높은 것을 발명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1. 입신하는 데에 의가 있으니 효도가 근본이요, 상제(喪祭)에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요, 전진(戰陣)에 질서가 있으니 용기가 근본이요, 치국(治國)에 방도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요, 왕위에 있음에 도가 있으니 계승이 근본이요, 재물을 생산함에 때가 있으니 노력이 근본이 된다.(孔子)

子曰, 立身有義而孝爲本이요, 喪祀有禮而哀爲本이요, 戰陣有列而勇爲本이요, 治政有理而農爲本이요, 居國有道而嗣爲本이요, 生財有時而力爲本이니라.

2. 정치를 행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백이요, 가문을 이루는 방도는 검약과 근면이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爲政之要는 曰 公與清이요, 成家之道는 曰 儉與勤이니라.

[풀이] 부정(不正)과 탐오(貪汚)로 나라를 그르치고 몸을 망치지 않은 이는 드물고, 사치와 게으름에 빠지고서도 가산(家産)을 보존했다는 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

3. 글을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좇음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

요, 화순(和順)함은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讀書는 起家之本이요, 循理는 保家之本이요, 勤儉은 治家之本이요, 和順은 齊家之本이니라.

[풀이] 독서와 순리(循理)와 근면과 검소함과 화순(和順)함, 이러한 가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단순히 처세의 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데에 더욱 유익할 것이다.

“목적은 말처럼 실행으로 부화(孵化)하지 않으면 곧 썩는다.” 고 한 스마일즈의 말은 인생에서 계획과 실천의 중요함을 말해 준다.

4.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녘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고, 새벽녘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에 할 일이 없다.(孔子三計圖)

孔子三計圖에 云하되, 一生之計는 在於幼하고, 一年之計는 在於春하고, 一日之計는 在於寅이니, 幼而不學이면 老無所知요, 春若不耕이면 秋無所望이요, 寅若不起면 日無所辦이니라.

5. 다섯 가지 가르침의 조목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엔 친애가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엔 분별이 있어야 하고, 나이 많은 이와 나이 적은 이 사이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벗과 벗 사이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性理書)

性理書에 云하되, 五教之目은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니라.

[풀이] 이른바 ‘오륜(五倫)’이다. 아버지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나이 많은 이와 나이 적은 이, 그리고 벗과 벗은 사람이 살아 가는 데 기본적인 인간 관계로서 그 사이에 각각 친(親)·의(義)·별(別)·서(序)·신(信)의 윤리가 행해져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6. 삼강은 임금은 신하의 버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버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버리가 되는 것이다.

三綱은 君爲臣綱이요, 父爲子綱이요, 夫爲婦綱이니라.

포우프는 “진실한 사람은 신의 가장 귀중한 조물(造物)이다.” 라고 했다.
7.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받들지 않는다.(王蠋)

王蠋이 曰, 忠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二夫니라.

◇왕촉(王蠋): 전국 시대의 제(齊)나라 사람, 조국이 이웃 연(燕)나라에게 패하자 항복의 권고를 물리치고 자살했다.

8. 관직을 다스림에는 공평 이상이 없고, 재물에 임함에는 청렴 이상이 없다.(忠子)

忠子曰, 治官에 莫若平이요, 臨財에 莫若廉이니라.

9. 무릇 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고, 행동은 돈독하고 공경하게 하고, 음식은 절제 있게 먹고, 글씨는 똑똑하고 바르게 쓰고, 모습은 단정하고 경건하게 하며, 의관은 바르고 엄숙하게 차려라. 걸음걸이는 조용하고 예모 있게 하고, 거처는 가지런하고 고요하게 하여라. 일은 계획을 세워 시작하

고, 말을 입 밖에 낼 때는 그 실행 여부를 살펴보고, 평상의 덕을 굳게 가지며, 승낙은 신중히 응하여라. 선을 보거든 내가 행한 것같이 여기고, 악을 보거든 나의 병인 것 같이 여겨라.

무릇 이 열 네 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이라 이를 써서 자리 오른편에 갖춰 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하는 것이다.(張思叔 座右銘)

張思叔座右銘에 曰, 凡語를 必忠信하며 凡行을 必篤敬하며 飲食을 必慎節하며, 字畫을 必楷正하며, 容貌를 必端莊하며, 衣冠을 必整肅하며, 步趨를 必安詳하며 居處를 必正靜하며, 作事를 必謀始하며, 出言을 必顧行하며, 常德을 必固持하며, 然諾을 必重應하고, 見善如己出하며 見惡如己病하라. 凡此十四者는 皆我未深省이라. 書此當座右하여 朝夕視爲警하노라.

◇장사숙(張思叔): 북송(北宋)의 학자로 정이천(程伊川)의 제자이다. ◇좌우명(座右銘): 자리 오른편에 써 두고 항상 스스로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교훈적인 말.

스마일즈는 “덕행은 나 자신에게 힘을 주고 남에게 덕행을 고취한다.” 고 말했다.
10.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 관직의 임명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둘째, 주현(州縣) 관원의 장단점과 득실(得失)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나쁜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넷째, 관직에 나아가고 기회를 좇아 세도에 붙잡는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재리(財利)가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자를 바란다는 것 따위를 말하지 않는다.

여섯째, 외설스런 농지거리며 여색(女色)에 대한 평을 말하지 않는다.

일곱째, 남의 물건을 구하는 것과 술과 음

식을 억지로 얻기 위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이 전해 달라는 편지를 뜯어 보거나 묵혀 두지 말며, 남과 한자리에 앉았을 때 남의 사신(私信)을 엿보지 말라. 남의 집에 갔을 때에 남이 지어 둔 글을 보지 말며, 남에게서 물건을 빌려 와 파손하거나 안 돌려주지 말라. 음식을 먹는 데 가리어 취사(取捨)하지 말며, 남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만의 편리를 취하지 말라. 무릇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라.
 이 몇가지 일에 범함이 있으면 족히 그 마음씨가 현명하지 못함을 알 것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데에 크게 해 되는 바가 있는지라, 이에 이것을 써 두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范益謙 座右銘)

范益謙座右銘에 曰,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하고,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하고,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하고, 四不言任進官職趨時附勢하고,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하고, 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하고, 七不言求覓人物于索酒食하고, 又人付書信을 不可開拆沈滯요, 與人并坐에 不可窺人私書요, 凡入人家에 不可看人文字요, 凡借人物에 不可損壞不還이요, 凡喫飲食에 不可揀擇去取요, 與人同處에 不可自擇便利요, 凡人富貴를 不可歎羨詆毀니라. 凡此數事에 有犯之者면 足以見用心不肖니, 於正心修身에 大有所害라, 因書以自警하노라.

영국 속담에 “근면은 행운의 오른손이요, 절약은 행운의 왼손이다.” 란 말이 있다.

11.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 가는 데 어째서 귀천 빈부가 같지 않은지 원컨대 설명을 들어 이것을 알고자 하오.”

태공이 말하기를 “부귀는 성인(聖人)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天命)에 말미암거니와 부유한 이는 쓰는 데 절제가 있고 부유하지 못한 이는 집에 열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武王이 問太公曰, 人居世上에 何得貴賤貧富不等고 願聞說之하여 欲知是矣로라. 太公이 曰, 富貴는 如聖人之德하여 皆有天命이어니와 富者는 用之有節하고 不富者는 家有十盜니라.

◇무왕(武王): 주(周) 문왕(文王)의 아들. 부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상(商) 왕조의 폭군 주(紂)를 몰아내고 천자에 올라 주 왕실을 일으켰다. 강태공을 왕사(王師)로 모시고 있었다.

[풀이] 사람이 세상 살아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이는 귀한가 하면 어떤 이는 천하고, 누구는 가난한가 하면 누구는 부유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어째서 그러한가를 두고 무왕은 왕사(王師)인 강태공에게 물어 보았다. 강태공은 무왕의 물음에 우선 “부귀는 성인의 거룩한 덕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명령에 말미암기는 하나 역시 부유한 이는 쓰는 데 절제가 있기에 그러하고, 부유하지 못한 이는 그 집에 열 도둑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고 답하였다.

12. 무왕이 “무엇을 가리켜 열 도둑이라 하오?” 하고 물으니

태공이 “철 맞아 익은 것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 도둑이요, 거둬들이어 잘 쌓아 두지 않는 것이 둘째 도둑이요, 일 없이 등불을 켜 두고 잘자는 것이 셋째 도둑이요,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는 것이 넷째 도둑이요,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이요, 지극히 해로운 일만 오로지 행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 도둑이요, 낮잠이나 자고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과 환락을 탐하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남을 몹시 시기하는 것이 열째 도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武王이 曰, 何謂十盜오. 太公이 曰, 時熟不收 爲一盜요, 收積不了 爲二盜도요, 無事燃燈寢睡 爲三盜요, 惰懶不耕 爲四盜요, 不施功力이 爲五盜요, 專行切害 爲六盜요, 養女太多 爲七盜요, 晝眠懶起 爲八盜요, 貪酒嗜慾이 爲九盜요, 強行嫉妬 爲十盜니이다.

카알라일은 “근면은 덕행의 근본이다.” 라고 했다.

13. 무왕이 물었다.

“집에 열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요?”

태공이 대답했다.

“그런 사람의 집엔 반드시 삼모(三耗)가 있을 것입니다.”

무왕이 “무엇을 삼모라 하오?” 하였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창고가 뚫려 있는데도 가리지 않아 쥐와 새가 어지러이 먹어 대는 것이 첫째 모(耗)요, 거두고 씨뿌리는 데에 때를 놓치는 것이 둘째 모요, 곡식을 흘뜨려 더럽고 천하게 다루는 것이 셋째 모입니다.” 하였다.

武王이 曰, 家無十盜而不富者는 何如닛고, 太公이 曰, 人家에 必有三耗니이다. 武王이 曰, 何名三耗오. 太公이 曰, 倉庫漏濫不盖하여 鼠雀亂食이 第一耗요, 收種失時 爲二耗모요, 拋撒米穀穢賤이 爲三耗니이다.

14. 무왕이 물었다.

“집에 삼모가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함은 어째서인가요?”

태공이 대답하였다.

“그런 사람의 집엔 반드시 첫째 착(錯), 둘째 오(誤), 셋째 치(痴), 넷째 실(失), 다섯째 역(逆), 여섯째 불상(不詳), 일곱째 노(奴), 여덟째 천(賤), 아홉째 우(愚), 열째 강(強)이 있어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지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왕이 다시 물었다.

“원컨대 그 내용을 다 듣고 싶소.”

태공이 대답했다.

“아들을 기르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 착(錯)이요, 어린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둘째 오(誤)요, 처음 신부를 맞아들일 때 엄한 교훈을 행하지 않는 것이 셋째 치(痴)요, 말하기 전에 먼저 웃기부터 하는 것이 넷째 실(失)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역(逆)이요, 밤중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 불상(不詳)이요, 남의 활을 가지고 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 노(奴)요, 남의 말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 천(賤)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남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 우(愚)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도 먹으라고 억지 쓰는 것이 열째 강(強)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훌륭하고 참되도다, 이 말이여!”

武王이 曰, 家無三耗而不富者는 何如닛고. 太公이 曰, 人家에 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詳七奴八賤九愚十强하여, 自招其禍요 非天降殃이니이다. 武王이 曰, 願悉聞之하노이다. 太公이 曰, 養男不教訓이 爲一錯이요, 嬰孩不訓이 爲二誤요, 初迎新婦不行嚴訓이 爲三痴요, 未語先笑 爲四失이요, 不養父母 爲五逆이요, 夜起赤身이 爲六不詳이요, 好挽他弓이 爲七奴요, 愛騎他馬 爲八賤이요, 喫他酒勸他人이 爲九愚요, 喫他飯命朋友 爲十强이니이다. 武王이 曰, 甚美誠哉라 是言也여.

국가는 구조 위에 서 있다. 사람은 그 구조에 참가하면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한다. 어떻게 구조의 터전을 마련해 갈 것인가?

프리드리히 대왕이 “짐은 국가 제일의 공복(公僕)”이라 한 말은 통치자의 자세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 처음으로 벼슬을 얻은 사람도 진실로 아끼는 일에 마음을 두기만 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구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明道先生)

明道先生이 曰, 一命之士 苟有存心於愛物이면 於人에 必有所濟니라.

◇명도 선생(明道先生): 북송의 학자 정호(程顥). 그는 주돈이(周敦頤)에게 수학했고 송대 성리학 발전에 공적이 크다. 그의 아우 이천(伊川) 정이(程頤)와 함께 ‘이정자(二程子)’로 존칭된다.

[풀이] 처음으로 벼슬을 임명받은 사람이란, 아직 그 지위가 대단하지 않은 미관(微官)을 의미한다. 그러한 미관마저도 진실로 아끼는 일에 마음을 두기만 한다면 백성에게 반드시 구제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이다.

2. 위에는 지시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이를 따라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며, 아래에는 이에 따르는 백성이 있다. 백성이 바친 베로 옷을 지어 입고 공간에 거두어 둔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니 너희의 봉록은 바로 백성의 기쁨이다. 아래의 백성은 학대하기가 쉽지만 위에 있는 저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니라.(唐太宗)

唐太宗御製에 曰, 上有摩之하고 中有乘之하

고 下有附之하니, 弊帛衣之요 倉廩食之하니 爾俸爾祿이 民膏民脂니라. 下民은 易虐이어나와 上蒼은 難欺니라.

◇당 태종(唐太宗): 당나라의 제2대 황제, 이름은 이세민(李世民). 즉위 2년에, 황충(蝗蟲:누리)이 농작물을 해치자 몸소 피해를 시찰하고서 황충 두어 마리를 잡아다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으니 너희 황충은 의당 나의 심장을 갉아 먹을 것이지요, 백성은 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벌레를 삼켜 애민 충정(愛民衷情)을 과시했다.

“촛불은 남을 비추어 주고 자신을 태운다”는 스페인 속담은 참다운 봉사 정신을 말해 준다.
3. 벼슬에 임하는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리라(童蒙訓)

童蒙訓에 曰, 當官之法이 唯有三事하니 曰 清 曰 慎 曰 勤이라. 知此三者면 知所以特身矣니라.

◇동몽훈(童蒙訓): 송나라의 여본중(呂本中)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책.

4. 벼슬자리에 있는 이는 반드시 성냄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노라면 반드시 맞을 것이나, 만약 성부터 먼저 낸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해로울 뿐이다.

當官者는 必以暴怒爲戒하여, 事有不可어든 當詳處之면 必無不中이어나와 若先暴怒면 只能自害라 豈能害人이리요.

5. 임금 섬기기를 나의 아버지 섬기듯 하고, 윗사람 섬기기를 나의 형 섬기듯 하고, 동료와 사귀기를 나의 가족처럼 하고, 여러

이속(吏屬) 대우하기를 나의 노복(奴僕)이듯 하고, 백성 사랑하기를 나의 처자와 같이 하고,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 일처럼 하고 난 뒤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 할 것이니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미흡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내 마음에 아직 극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事君을 如事親하며, 事官長을 如事兄하며, 與同僚를 如家人하며, 待羣吏를 如奴僕하며, 愛百姓을 如妻子하며, 處官事를 如家事然後에야 能盡吾之心이니, 如有毫末不至면 皆吾心에 有所未盡也니라.

“사회 이익에 착안하고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아직도 극히 적다.” 고 한 프랭클린의 말은 공무에 임하는 이에게 따가운 일침(一針)이다.

6. 어떤 이가 이천 선생에게 물었다.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인데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이 혹 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 선생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성의로 움직일 일이다. 지금 영과 부가 서로 맞지 않음은 곧 사사로운 생각으로 다투는 것이다. 영은 고을의 우두머리니 만약 제 부형(父兄) 섬기는 도리로 섬겨서 잘못이 있으면 자신에게로 돌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영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곤 하여 이 같은 성의를 쌓아 간다면 어찌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或이 問, 簿는 佐令者也라 簿所欲爲를 令或不從이면 奈何닛고. 伊川先生이 曰, 當以誠意로 動之니라. 今令與簿不和는 便是爭私意요, 令은 是邑之長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로 事之하여 過則歸己하고, 善則唯恐不歸於令하여 積此誠意면 豈有不動得人이리오.

◇이천 선생(伊川先生): 북송의 학자 정이

(程頤). 명도(明道) 정호(程顥)의 아우. 주희(朱熹)와 함께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부(簿):관청의 장을 보좌하는 지위 ◇영(令): 현읍(縣邑)의 장.

[풀이] ‘부(簿)’란 관청의 장(長)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만약 현읍(縣邑)의 장인 ‘영(令)’을 보좌하는 ‘부’가 의도하는 바를 그 영이 혹 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좋으냐는 물음에 정이천(程伊川) 선생은 마땅히 성의로 움직일 일이라고 했다. 즉 ‘부’가 제 부모 형제 섬기는 도리로 ‘영’을 섬겨서 잘못이 있으면 ‘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영’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서든 그 잘한 일을 ‘영’의 영광으로 돌리곤 하여 성의를 쌓아 간다면 그 누군들 ‘부’ 곧 자신을 보좌하는 자의 뜻에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7. 유안례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 선생이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진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부하 통솔의 도리를 물으니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자기 밖의 것을 바르게 하라.”

고 말씀했다.

劉安禮 問臨民한대 明道先生이 曰, 使民으로 各得輸其情이니라. 問御吏한대 曰, 正己以格物이니라.

◇유안례(劉安禮): 자는 원소(元素), 북송 때의 사람이다.

[풀이] 치자(治者)는 어떻게 백성 위에 임할 것이며, 부하를 통솔할 것인가? 유안례의 물음에 정명도 선생은 그 기본적인 태도에 관해 밝혔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진정을 알릴 수 있도록 강압하지 말라 하

고, 먼저 치자 자신부터 바르게 하여 모범이 됨으로써 자기 밖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라고.

8. 도끼를 맞이하고서도 바르게 간(諫)하며, 가마에 삶겨 죽기에 이르러도 할 말을 다한다면 이가 바로 충신이니라.(抱朴子)

抱朴子曰, 迎斧鉞而正諫하며 據鼎鑊而盡言이면 比謂忠臣也니라.

◇포박자(抱朴子): 진(晉)나라 사람 갈홍(葛洪)의 호이자 그가 지은 책이름. 갈홍은 특히 신선술을 즐겨 닦았으나 국정에 공도 세웠는데 그의 저서 [포박자]의 [내편(內篇)]에서는 신선술을, [외편(外篇)]에선 시정의 득실과 인사의 좋고 나쁨을 논했다.

[풀이] 군왕의 뜻에 곡종(曲從)하는 이가 충신이 아니다. 임금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서라면 설령 서슬이 푸른 도끼가 내려지더라도 간할 것은 간하고, 설령 끓는 가마에 삶겨지기에 이르러서도 할 말을 다하는, 이런 이가 진실로 충신이다. 도끼와 가마 모두 극형의 형구(形具)이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바른대로 간하는 것이 진정한 충신이란 말이다.

모든 구성은 합리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개체는 가정의 구성 인자이며 가정은 국가 사회를 이루는 단위이다. 훌륭한 개체는 훌륭한 가정을, 훌륭한 가정은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

1. 무릇 손아랫사람은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가리지 말고 독단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어른께 여쭙어 보고서 할 일이다.(司馬溫公)

司馬溫公이 曰, 凡諸卑幼 事無大小 必 母得專行하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풀이] 집안에는 가장이 있는 법이다. 손아랫사람은 일이 크든 작든 가장에게 여쭙어 보고 행해야 할 것이다. 가장은 인생 체험이 많으므로 젊은이가 미처 모르는 예지(叡智)를 지녔으며, 또 아랫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이다.

2. 손님 접대는 풍성하게 하되 살림살이는 검소하게 하라.

待客에 不得不豐이요 治家에 不得不儉이니라.

카네기는 “나폴레옹 3세의 가정 생활의 파멸은 유제니 황후의 끊임없는 불평과 비평에 기인한 것이며, 톨스토이의 노후의 비극은 그의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반항에 기인한 것이며, 링컨의 가정적 불행은 부인의 히스테릭한 행동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고 했다.

3. 못난이는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공경한다.(太公)

太公이 曰, 痴人은 畏婦하고 賢女는 敬夫니라.

4. 노복을 부림에 먼저 그들이 배고프고 춥지 않은지 염려하라.

凡事奴僕에 先念飢寒이니라.

“어디 간들 나의 집 품안보다 더 좋은 사랑을 받을 것이냐? “란 말이 있다.
5.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子孝雙親樂이요 家和萬事成이니라.

6. 때때로 불이 날까 예방하고 밤마다 도둑이 올까 방비하라.

時時防火發하고 夜夜備賊來니라.

7. 아침 저녁 식사가 이른지 늦는지를 보면 그 집이 흥하는지 쇠하는지 점칠 수 있다.(景行錄)

景行錄에 云하되 觀朝夕之早晏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니라.

[풀이] 일 없이 조석반(朝夕飯)이 늦는 것은 그 집안이 게으른 탓이요, 게으른 집안이 흥할 리 없다. 조석반이 이르고 늦음을 보아 그 집안이 흥하는지 쇠하는지 점칠 수 있다는 말이다.

영국의 존슨은 “돈만 위하여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고, 사랑만 위하여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 “고 했다.

8. 혼인의 일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이다.(文仲子)

文仲子曰, 婚娶而論財는 夷虜之道也니라.

◇문중자(文仲子): 수(隋)나라 때의 석학 왕통(王通)을 가리킨다. 조정에 올린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러나 제자를

길러 냈는데, 당나라 초기에 활약한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위징(魏徵) 등은 모두 그의 문하생이다. 저서로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중설(中說)뿐이나 그 밖에 [예론(禮論)]도 있다. ‘문중자’는 그가 죽은 뒤 제자들이 부른 호이다.

[풀이] 결혼은 인격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두 사람의 인격 자체에 있지 두 집안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러한 결혼의 정도(正道)를 모르고 혼사에 재물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저 야만 오랑캐의 도이지 문화인이 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얽혀든다. 부부 관계, 부자관계, 형제 관계.....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런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나폴레옹은 “가정 불화는 파산의 근본” 이라고 말했다.

1. 사람이 있는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뒤에는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는 뒤에는 형제가 있나니, 한 가정의 친속(親屬)은 이 셋뿐이다. 이에서부터 나아가 구족(九族)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이 삼친(三親)에 뿌리를 두는지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지 않게는 못하리라. (顏氏家訓)

顏氏家訓에 曰, 夫有人民而後에 有夫婦하고, 有夫婦而後에 有父子하고, 有父子而後에 有兄弟하니, 一家之親은 此三者而已矣라. 自茲以往으로 至于九族이 皆本於三親焉故로 於人倫에 爲重也이니 不可不篤이니라.

◇안씨가훈(顏氏家訓): 남북조 시대의 문신이자 학자이던 안지추(顏之推)가 지은 책. 자손에게 주는 훈계의 책으로서 입신 치가(立身治家)의 법을 논함. ◇구족(九族): 고조로부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현손까지의 동종 친속의 범위를 일컫는 말. 자기를 본위로 직계친은 위로 4대 고조, 아래로 4대 현손까지이며, 방계친은 고조의 4대손이 되는 형제, 중형제, 재중형제, 삼중형제까지이다.

2. 형제는 팔다리와 같고 부부는 옷과 같으니, 옷이 헤어졌을 때는 다시 새것을 얻을 수 있지만 팔다리가 끊어진 곳은 잇기가 어렵다.(莊子)

莊子曰, 兄弟는 爲手足하고 夫婦는 爲衣服이니, 衣服破時엔 更得新이어니와 手足斷處엔 難可續이니라.

[풀이] 형제와 부부의 비증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를 질문한다면 여러 대답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유교적 전통에서 살아온 동양인은 혈연 중심의 사고 방식에 기인하는 형제 우위(優位)를 숭상할 것이다. 이 구절은 바로 이러한 사고 방식을 뒷받침해 준다. 요즘에는 이러한 관점이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리라.

포르투갈의 속담에 “부자 친구 집에는 부를 때에 가고 가난한 친구 집에는 부르지 않아도 가라. “고 했다.

3. 부유하다고 친하지 않으며 가난하다고 멀리 하지 않음은 바로 사람 가운데 대장부다운 일이요, 부유하면 나아오고 가난하면 물러남은 바로 사람 가운데 소인배 짓이다.(蘇東坡)

蘇東坡가 云하되, 富不親兮貧不疎는 此是人間大丈夫요, 富則進兮貧則退는 此是人間眞小輩니라.

[풀이] 부자라 해서 반드시 미덕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 해서 악덕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친교(親交)의 계기를 빈부로 측정할 수는 없다. 눈앞의 상황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며,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며 살아 가야 함을 가르친다.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의 나라라고 불러 왔다. 사람 사이의 예의는 서로의 인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인격이 고상하다는 말이 아닌가.

“인생은 예의를 지킬 여유가 없을 만큼 짧지 않다.” 고 한
에머슨의 말은 인생에서 예의의 중요함을 말해 준다.

1. 가정에 예가 있으므로 장유(長幼)가 분별되고, 집안간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三族)이 화목하게 되고, 조정예 예가 있으므로 관작(官爵)에 차서(次序)가 있게 되고, 사냥에 예가 있으므로 군사(軍事)가 숙달되고, 군중(軍中)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이 성취된다.

子曰, 居家有禮故로 長幼辨하고, 閨門有禮故로 三族和하고, 朝廷有禮故로 官爵序하고, 田獵有禮故로 戎事閑하고, 軍旅有禮故로 武功成이니라.

◇삼족(三族): 부·모·아내 세 계통의 친족 및 척족(戚族)

[풀이] ‘예(禮)’란 질서를 이루려는 준칙이니 사람 사회엔 반드시 있게 마련이요, 또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가정에 예가 있어 이에 따름으로써 장유(長幼)가 분별되고, 집안간에 예가 있어 이에 따름으로써 삼족(三族)이 화목하게 되고, 조정예 예가 있어 이에 따름으로써 관작(官爵)에 차서(次序)가 있게 되고, 사냥에 예가 있어 이에 따름으로써 군사(軍事)가 숙달되고, 군중(軍中)에 예가 있어 이에 따름으로써 무공이 성취되는 법이니 예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2.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난동하게 되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질을 저지르게 된다.(孔子)

子曰, 君子 有勇而無禮면 爲亂하고 小人이 有勇而無禮면 爲盜니라.

[풀이] 여기서 ‘군자(君子)’란 상류 지식층의 사람, ‘소인(小人)’은 하층민을 가리킨다. 상류 지식층의 사람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난동으로 흐르기 쉽고, 하층민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질을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용(勇)과 예(禮)는 상충되기 쉬운 것으로 이 두 가지를 겸해 갖추어 조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에머슨은 “예의와 사양은 조금만 자기를 이기면 된다.” 고 말했다.

3. 조정에서는 벼슬보다 더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나이보다 더한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에는 덕보다 더한 것이 없다.(曾子)

曾子曰, 朝廷엔 莫如爵이요, 鄉黨엔 莫如齒요, 輔世長民엔 莫如德이니라.

◇증자(曾子):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이다. 공자의 제자로서 정통 계승자가 되었고, 특히 효행으로 이름난 이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효경(孝經)]은 그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노소 장유(老少長幼)는 하늘이 부여한 질서이니 이치를 어겨 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老少長幼는 天分秩序이니 不可悖理而傷道也니라.

5. 문 밖에 나설 때에는 마치 큰 손님이라도 뵈울 듯이 하고, 방으로 들어설 때에는

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라.

出門에 如見大賓하고, 入室에 如有人이니라.

6. 남이 나를 정중히 대해 줄 것을 바라거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남을 정중히 대해 주라.

若要人重我인댄 無過我重人이니라.

[풀이] 누구나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당하면 불쾌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 남에게 정중한 대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만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7.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父不言子之德하고 子不談父之過니라.

말 한 마디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어떻게 진정한 언어 생활을 할까?

카알라일은 “그 마음 속에 숨겨 두지 못하고 말을 다 퍼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 말이 조리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劉會)

劉會 曰, 言不中理면 不如不言이니라.

2.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데없다.

一言不中이면 千語無用이니라.

3.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으니 말을 삼가야 한다.(君平)

君平이 曰, 口舌者는 禍患之門이요 滅身之斧也니라.

4.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숨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 같아서 한 마디 말이 무겁기가 천금과 같고, 한 마디 말이 사람을 중상함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利人之言은 煖和綿絮하고, 傷人之語는 利和荊棘하여 一言半句 重值千金이요, 一語傷人 에 痛如刀割이니라.

5.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

다.

口是傷人斧요 言是割舌刀니, 閉口深藏舌이면 安身處處牢니라.

“사람을 대해서 자기 일만을 떠드는 인간은 첫째로 자신의 교양없음을 자백하고, 둘째로는 사교의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다.” 카네기의 말이다.

6. 사람을 만나서 또한 가끔 말을 하되, 가히 온전히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의 무서운 입을 두려워 말고 오직 인정의 두 마음을 두려워할 일이다.

逢人且說三分話하되, 未可全拋一片心이니, 不怕虎生三個口요 只恐人情兩樣心이니라.

7. 나를 아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이나 되는 술도 적고, 그 기회를 맞추지 못하면 한 마디 말도 많은 법이다.

酒逢知己千鍾少요, 話不投機一句多니라.

인생을 살아 가는 데는 벗이 필요하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생을 이야기하고 고뇌를 함께 하는 참된 벗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에머슨은 “사람들은 병을 주고받는 것처럼 거울도 서로 배운다. “고 했다.

1.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란(芝蘭)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더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붉은 물감에 간수된 것은 붉어지고 검은 물감에 간수된 것은 검어지는 법인지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 지낼 이를 삼가서 택한다.(孔子)

子曰, 與善人居면 如入芝蘭之室하여 久而不聞其香이라도 卽與之化矣요, 如不善人居면 如入鮑魚之肆하여 久而不聞其臭라도 亦與之化矣니, 丹之所藏者赤하고 漆之所藏者黑이라, 是以로 君子는 必愼其所與處者焉이니라.

[풀이] 사람 사귀는 데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에게서 영향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2.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서 비록 옷이 흠뻑 젖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물기가 베어들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가면 마치 측간에 앉은 것 같아서 비록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그 냄새가 난다.(家語)

家語에 云하되, 與好學人同行이면 如霧中行하여 雖不濕衣라도 時時有潤하고, 與無識人

同行이면 如廁中坐하여 雖不汚衣라도 時時聞臭니라.

“벗을 얻는 비결의 하나는 스스로가 남의 벗이 되는 것이다. “ 에머슨의 말이다.
3. 안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훌륭히 했도다. 오래도록 변함없이 공경했나니.(孔子)

子曰, 晏平仲은 善與人交로다. 久而敬之은여.

◇안평중(晏平仲):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 이름은 영(嬰), 평중(平仲)은 자(字)이다. 공검 역행(恭儉力行)으로 영공(靈公)·장공(莊公)·경공(景公)을 도와 제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안자(晏子)로도 지칭한다.

[풀이] 춘추 시대 제나라의 대부 안영의 교우를 평한 공자의 말이다. 오래도록 변함없는 공경을 지속할 수 있었음은 안영이 어질고, 그만큼 벗을 택하는 것도 훌륭했기 때문이다.

4. 얼굴 아는 이야 천하에 가득하되 마음 아는 이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相識이 滿天下하되 知心能幾人고.

[풀이] 얼굴만 안다고 해서 참된 교우라고 할 수는 없다. 서로 그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교우라 할 수 있다. 면식(面識)쯤이야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마음 아는 이는 몇 사람이나 될까. 지기(知己)가 흔하지 않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많은 벗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의 벗도 가질 수 없다.” 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진정한 벗이 귀함을 말해 준다.

5. 술 마시고 밥 먹을 때의 형제는 천 사람이나 있더라도 위급할 때의 벗은 하나도 없

구나.

酒食兄弟는 千個有로되 急難之朋은 一個無
니라.

[풀이] 내게 돈이 있어 술을 사 주고 밥을
먹여 줄 때는 형, 아우 하며 따르는 친구가
천 사람도 되더니만 내가 위난(危難)에 빠
졌을 때 전혀 주는 벗은 하나도 없구나. 마
음을 터놓고 벗을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말
이다.

6. 군자의 사귄은 담박(淡泊)하기가 물 같
고 소인의 사귄은 달콤하기가 단술 같다.

君子之交는 淡如水하고 小人之交는 甘如醴
니라.

[풀이] 물은 담박하지만 변하지 않음이 그
특질이고, 단술(감주)은 달콤하지만 변하는
것이 그 특질이다. 군자의 사귄은 의로 맺
어지는 사귄이요 소인의 사귄은 이(利)로
맺어지는 사귄인지라, 군자의 사귄은 겉으
로는 담박하기가 물 같지만 안으로는 돈독
한 정으로 맺어져 변함이 없으나 소인의 사
귄은 당장 달콤한 정을 겉으로 내뽐다가 일
단 이(利)가 맞지 않으면 서로 야박스레 돌
아서기 일쑤이다.

7.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게 되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路遙에 知馬力이요, 日久에 見人心이니라.

[풀이] 말을 타고 먼 길을 가 보면 비로소
그 말이 지닌 힘의 강약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귄에 사귀는 날이 오를수록 그 사람 마음 됴됨이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역사 혹은 개인의 인생에서 여성의 힘이 때로는 놀라울 만큼 위대한 때가 있다.

영국 속담에 “처녀로서는 다이아몬드일지라도 아내로서는 유리가 된다. “는 말이 있다.

1. 여자에게는 기림받을 네 가지 덕이 있으니, 첫째는 부녀로서 갖추 덕성이요, 둘째는 부녀로서 갖추 용의(容儀)요, 셋째는 부녀로서 갖추 말씨요, 넷째는 부녀로서 갖추 숨씨가 그것이다. 부녀의 덕성이란 반드시 재지(才智)가 뛰어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부녀의 용의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부녀의 말씨란 반드시 말숨씨가 능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부녀의 숨씨란 반드시 능묘한 재주가 남다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부녀의 덕성이란 맑고 절개 곧으며 염치 있고 절제 있어 분수를 지켜 마음을 정연히 가다듬고, 행동 거지에 수줍음이 있으며 동정에 법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녀의 덕성이다.

부녀의 용의란 항상 먼지며 때를 빨아 옷차림을 깨끗이 하며 목욕을 제때에 하여 일신에 불결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부녀의 말씨란 말을 가려서 하되 그른 말을 하지 않으며 꼭 해야 할 때에 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녀의 숨씨란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꼭 술 빛는 것만을 능사로 하지 말고 좋은 맛을 갖추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덕은 부녀로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으로서, 행하기가 매우 쉽고 또 그렇게 힘쓰는 것이 올바른 일이니, 이에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부녀의 범절이다.(益智書)

益智書에 云하되, 女有四德之譽하니 一曰婦德이요 二曰婦容이요 三曰婦言이요 四曰婦工也니, 婦德者는 不必才名이 絶異요 婦容者는 不必顔色이 美麗요 婦言者는 不必辯口利詞요 婦工者는 婦不必伎巧過人也니라. 其婦德者는 淸貞廉節하여 守分整齊하며 行止有恥하고 動靜有法이니 此爲不德也요 婦容者는 洗浣塵垢하여 衣服鮮潔하며 沐浴及時하여 一身無穢니 此爲婦容也요 婦言者는 擇詞而說하되 不談非語하고 時然後言하여 人不厭其言이니 此爲婦言也요 婦工者는 專勤紡績하며 勿好暈酒하고 供具甘旨하여 以奉賓客이니 此爲婦工也니라. 此四德者는 是婦人之所不可缺者라, 爲之甚易하고 務之在正하니 依此而行이면 是爲婦節이니라.

2. 부녀의 예절로서는 말소리가 반드시 가늘어야 한다.(太公)

太公이 曰, 婦人之禮는 語必細니라.

[풀이] 여자가 큰 소리로 소란을 떠는 것처럼 흉한 것도 없다. 무릇 부녀는 그 말소리를 나직하고 가늘게 하라. 그것이 여자의 아름다움이요, 예절이다.

“어진 아내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라도 견딜 수 있다. “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3.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賢婦는 令夫貴요, 惡婦는 令夫賤이니라.

4.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뜻밖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

家有賢妻면 夫不遭橫禍니라.

[풀이] 어진 아내는 남편의 모든 일에 자상한 염려를 기울여 알게 모르게 남편을 보살핀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닥칠 수도 있던

횡화(橫禍)를 항상 미연에 방지한다.

5. 어진 아내는 육친(六親)을 화목하게 하고 간특한 부녀는 육친을 깨뜨린다.

賢婦는 和六親하고 佞婦는 破六親이니라.

◇육친(六親): ‘부(父)·모(母)·형(兄)·제(弟)·처(妻)·자(子)’ 라는 설, ‘부(父)·자(子)·형(兄)·제(弟)·부(夫)·부(婦)’ 라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어 한결같지 않으나 여기서는 그저 ‘가까운 친척’ 째름으로 알면 무방하다.

[풀이] 한 집안이 화목한가 아닌가는 주부의 사람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